

The background features a light cream color with several large, flowing, organic shapes in a slightly darker cream tone on the right side. On the left side, there is a cluster of circles and ovals in two shades: a dark olive green and a light tan. The text is positioned in the lower right area of the page.

East Asia Institute 2007 Annual Report

A Premier Think Tank

목차

- 4 인사말
- 6 EAI 7대 원칙
- 7 외교안보대전략
 - 새로운 한미동맹을 위하여 : 복합동맹의 건설
 - 북한정책 : 냉전을 뒤로 하고 햇볕정책을 넘어서
 - 중국과 동아시아
 - 매력국가 한국
- 21 민주대전략
 - 일하는 민주정부
 - 책임있는 사회
 - 정책정당을 만드는 민심
- 34 특별기획 : 한국정치사 연구
- 35 인재대전략
 - 동아시아 지식사회의 허브를 꿈꾼다
 - 차세대 리더를 육성한다
 - 전문가를 키운다
- 43 국가대전략의 전파
 - 언론
 - 포럼
 - 출판
- 55 EAI 사람들
 - 연구기획
 - 이사회
 - 후원회
- 58 재정

EAI는 국익을 위하여 보다 나은 정책을 구상하고 보다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자 노력하는 싱크탱크입니다. 하나의 정책이 밝은 미래한국의 초석이 된다는 믿음에서 정책연구에 나서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제안하고 사회에 전파합니다.



Mission

EAI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리버럴리즘의 이상을 추구합니다. 주권을 그 주인인 시민에게 되돌려주고 인권을 절대적 가치로 삼습니다. 모든 차별을 배격하고 기회의 평등성을 지향합니다.

EAI는 리버럴리즘의 이상을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의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민주대전략과 안보대전략을 구상합니다. 리버럴리즘은 민주주의 공동체에서 싹트고 지역평화에 기대어 자라납니다.

EAI는 한국의 밝은 미래를 열고 동아시아 지역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를 키우기 위한 인재대전략을 마련합니다. 결국 사람이 밝은 미래로 가는 창을 열기 때문입니다.

미래 한국의 자산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이사장 이홍구

지난 5년간 EAI가 한국사회에 보여준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역사도 짧고 매우 단출한 조직을 가진 민간연구기관의 성과라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우수한 연구결과가 단행본·학술저널·정책보고서·포럼·강연회·언론보도 등으로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에 전달되었습니다. EAI는 이미 세계적 수준의 영문학술저널을 발행하고 있으며 각종 학술단체들도 한국의 대표적 연구기관으로 EAI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EAI의 연구결과물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전달되고 정부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연구결과라 하더라도 연구실에 쌓여만 있다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EAI의 연구성과는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소개되고 자체 포럼사업을 통해 전문가 집단 내에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현실참여 방식이 마땅하지 않았던 현실을 고려할 때 EAI가 선보인 싱크탱크식의 참여방식은 값지고 성공적인 실험입니다.

마지막으로 EAI는 독립적 민간싱크탱크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정부·정치권·기업·시민단체들과 거리를 분명히 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한 점은 매우 얻기 힘든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 전문 연구기관이 연구대상의 집단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도 그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EAI가 크고 멀게만 느껴졌던 목표들을 하나둘씩 이루어나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저는 다시 한 번 그 잠재력에 기대를 걸게 됩니다. 국의 최우선의 관점에서 넓은 안목과 전략적 사고를 동시에 갖춘 오늘과 내일의 EAI는 더 이상 EAI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만의 자산이 아닙니다. EAI는 미래한국의 큰 자산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발 앞선 전략, 대한민국이 달라집니다

“본래 땅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 5년 전 EAI가 첫걸음을 내딛을 때 마음으로 기뻐던 어느 선인(先人)의 격려입니다. 희망과 자신감이 컸던 만큼 두려움과 부담도 많았습니다. 아무도 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새롭고 객관적인 지식을 생산하여 오로지 공익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미션도 세웠습니다. 애초 다짐대로 EAI는 독립적인 민간 싱크탱크로서 그 정체성을 담금질 해왔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당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당파성을 가지게 되면 논리가 무너지고 편협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도 선을 그었습니다. 권력에 가까이 가면 생각이 혼탁해지고 시야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시민운동과도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보다 ‘생각하는 행동’이 한국사회에 보다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EAI의 성과에 대해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멍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해 나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EAI는 리버럴리즘의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개인이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튼실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안보대전략·민주대전략·인재대전략을 기획하고 전파하겠습니다. 물론 거창한 구호보다 작은 실천이 어렵습니다. EAI는 그 작은 실천에 전력하고자 합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학자와 연구원에서부터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후원회에 이르기까지 EAI 가족 모두가 함께 이 작은 실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 5년을 되돌아보니 숲 사이로 이제 작은 오솔길 하나가 생겼습니다. 오솔길은 한국을 넘어서 세계를 향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EAI는 함께 하는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모아 묵묵히 발걸음을 다시 내딛습니다. 걸어온 길보다 가야 할 길이 더 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EAI는 그 먼 여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장 김병국



A Premier Think Tank

EAI

7대 원칙

공익을 추구한다

EAI는 사(私)를 배제하고 공(公)을 아끼는 마음으로 안보대전략 · 민주대전략 · 인재대전략을 개발한다.

독립성을 지킨다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되기 위하여 정부 · 정당 · 이익집단 · 시민단체 등과 불가근 불가원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한다.

이해상충을 경계한다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 권력을 추구하거나 운동을 지향하면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히고 설켜 미래한국에 대한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모토로 삼아 정책의 구상과 전파에 EAI의 역할을 제한한다.

투명한 재정운영의 원칙을 지킨다

국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재정적 투명성을 구축한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한다

첨단 사회과학이론에 기반하여 양질의 안보대전략 · 민주대전략 · 인재대전략을 생산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생산의 과정을 세계표준에 맞춘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아이디어를 전파한다

아이디어의 소비자가 없다면 그 생산자가 설 땅이 없기 때문에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언론과 함께 일한다.

학연 · 지연 · 젠더 · 세대를 초월하여 최상의 연구진을 구성한다

연고주의를 배격하고 학벌주의를 경계하며 성차별을 반대하는 동시에 기존 학계의 세대질서를 뛰어넘으면서 최상의 연구팀을 구성한다.

외교안보대전략

21세기는 변환의 시대이다. 지구촌 전체가 세계화의 영향 아래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가 하면 지식의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부와 권력의 원천으로 부상하는 시대이다. 아울러 중국의 부상으로 세계권력구조의 중심축이 그 밑에서부터 진동하고 테러리즘의 확산이 삶의 불확실성을 더 한층 악화시키는 시대이다. 이처럼 안보에서 경제에 이르는 삶의 전영역이 재편되는 변환의 시대는 냉전 대 탈냉전의 이분법으로 헤쳐나갈 수 없다. 좌와 우만을 바라보는 단안적 편견이 아니라 앞과 뒤는 물론 위와 아래까지 살피는 복안적 안목으로 외교안보대전략을 구상해야 변환의 시대에 평화와 번영을 구가할 수 있다. EAI 외교안보연구는 시대정신에 맞는 변환전략을 구상하여 한국사회에 복안적 안목을 불어넣고 국익을 달성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새로운 한미동맹을 위하여 : 복합동맹의 건설

변환시대의 국익은 한미동맹의 재편을 통해 달성된다. 미국은 21세기를 주도할 세계전략으로 군사변환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어디에서든 신속하고 강하게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체제로 재편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전략이 변화한 만큼 동맹의 성격과 형태에도 근본적 변화를 주고 싶어한다. 유동군으로 존재하는 미군에게 기지를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 미군과 함께 작전을 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하면서도 유연한 동맹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도 자신의 국력증진에 걸맞게 한미동맹을 대등한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어한다. 한국은 자신과 가장 포괄적으로 안보이익이 중첩되는 국가가 미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자신의 변환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그 방향이 복합동맹의 건설이다.

한미동맹로드맵 연구팀

공동위원장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하영선 EAI 이사 · 서울대

고문

김경원 EAI 이사

연구진

김병국 EAI 원장 · 고려대

김성한 고려대

김영호 국방대

김일영 성균관대

김태현 EAI 외교안보센터소장 · 중앙대

김태효 성균관대

박철희 서울대

박종철 통일연구원

신성호 서울대

신옥희 서울대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 고려대

이상현 세종연구소

이시영 중앙대

전재성 서울대

정원철 EAI 선임연구원

정환율 EAI 선임연구원

차두현 국방연구원

최 강 외교안보연구원

한미동맹의 변환전략

EAI는 한미동맹이 “복합동맹”으로 변환되지 않으면 한미동맹 자체가 한국의 탈냉전 논리와 미국의 변환논리 사이에서 그 뿌리부터 흔들린다는 인식이다. 미국의 변환정책을 충속시켜주면서도 한국의 자주의식을 만족시켜주는 전략이 복합동맹이다. 2004년 9월 구성된 EAI 한미동맹로드맵 연구팀은 한미동맹을 복합동맹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후원 한미협회 · 중앙일보 · 아시아재단



EAI가 제안하는 분야별 변환원칙

- *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양국은 보다 정교한 운영체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 시기를 한국군의 자체 방위역량 증강과 연계하여 결정한다.
- * 한국군은 독자적 군사력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미군의 변환전략에 따라 군사적 상호운용성을 제고한다.
- * 주한미군의 규모보다 그 전력의 중요하다.
- * 미군기지는 상시주둔 지상군보다 신속전개군과 원정군의 효율적 접수와 관리를 위해 변환되어야 한다.
- *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정은 미리 그 시기를 결정해 놓고 추진하기 보다 한국군의 여건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미동맹로드맵 학술회의

연구팀은 2006년 5월 23일 한미 양국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한미동맹로드맵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제1차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06년 10월에는 단행본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가 출간되었다.

회의 참석자

EAI

한미동맹로드맵 연구팀 외

이흥구 EAI 이사장 · 전 국무총리

한승주 EAI 이사 · 전 주미대사

김경원 EAI 이사 · 전 주미대사

국회

류재건 열린우리당 의원

박진 한나라당 의원

노희찬 민주노동당 의원

정부

조병제 외교통상부 북미심익관

박찬봉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상근대표

김병기 국방부 한미동맹팀 팀장

언론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미국측

Alexander Vershbow 주한미대사

Stephen Sargeant 주한미군 부참모장

James Wisecup 주한미해군 사령관

Edward Reed 아시아재단 대표

Don Q. Washington 주한미대사관 공보참사관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미래의 북핵동맹은 (1) 군사동맹에서 포괄적 안보동맹으로, (2) 지역 중심에서 위협 중심의 협력으로, (3) 대응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나아가 한다. 한국과 미국이 21세기에 맞는 호

혜적 동맹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 전반적 국가전략의 협력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이것은 다차원적 포괄협력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다” 본문 중에서



버쉬바우 주한 미대사
“한국군이 자체적 지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체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재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전략적 유연성은 무조건 거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중국이 한반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영선 EAI 이사
“전면적 동맹변환 후 북핵동맹으로 가야 합니다.”

한미동맹 현안연구

국가안보패널

하영선 위원장 · EAI 이사 · 서울대
전재성 간사 · 서울대
김병국 EAI 원장 · 고려대
김성한 고려대
김태현 EAI 외교안보센터 소장 · 중앙대
김하정 EAI 선임연구원
김현진 삼성경제연구소
민병원 서울산업대
박종철 통일연구원
박철희 서울대
배영자 건국대
서병훈 숭실대
손 열 연세대
신범식 인천대
신성호 서울대
오승렬 한국외대
이동선 고려대
이상현 세종연구소
이태환 세종연구소
장 훈 EAI 거버넌스센터 소장 · 중앙대
정진영 경희대
차두현 국방연구원
최 강 외교안보연구원

한미동맹에 대한 정부정책과 국민여론이 목전의 현안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하물며 정당의 당파적 이해관계가 현안에 대한 정책을 지배해서는 더욱 안 된다. EAI 국가안보패널은 한미동맹을 복합 동맹의 단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장기적 비전 아래 한미동맹이 당면한 현안의 성격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조선일보 지면과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되는 동시에 학계 · 언론계 · 정계 · 관계의 전문가들에게 발송됨으로써 해당 현안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구축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후원 조선일보



왼쪽부터 시계방향 전재성 김성한 이상현 최강 신성호

국가안보패널 한미동맹보고서

- 제 2호 이라크 파병과 국가이익 김성한 2004년 8월
- 제 3호 주한미군 재배치와 21세기 한국의 신안보전략개념 한용섭 2004년 9월
- 제 5호 2004 미국대선과 한반도 장 훈 2004년 11월
- 제 9호 정보화시대의 군사제국 : 미 군사변환의 세계전략과 네트워크 이상현 2005년 10월
- 제10호 미국의 동아태 전략 : 변화와 지속성 김성한 2005년 11월
- 제12호 동북아 경제협력과 한국의 FTA 전략 정진영 2006년 1월



"21세기 한반도가 변환의 파도를 성공적으로 타고 넘어서 당당하게 무대의 중심에 서려면 좌우만 바라 보는 단안적 편견이 아니라 앞과 뒤까지 두루 살피는 복안적 안목이 절실하다." 하영선 EAI 이사

한미동맹 국제학술회의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미의식은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테러전을 수행하는 것에서부터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 역할이 일방주의적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 EAI는 보다 바람직한 미국의 국제적 역할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제학술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America in Question

EAI는 2005년 5월에 Liu Institute for Global Studies와 공동으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진보에서 보수에 이르는 다양한 국내외 인사들이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심도 깊은 토의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왼쪽부터 Flake Snyder 한용섭

Living under U.S. Leadership

EAI는 2004년 CCGA·CIDE와 공동으로 시행한 대외인식 3개국 공동 국제여론조사 결과 나타난 세계적 현안에 대한 3개국 국민들의 인식을 학술적으로 분석하는 국제학술회의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 아래 2005년 8월에 개최하였다.



왼쪽부터 Page Shapiro 김태현

발표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 고려대

김성한 고려대

Peter Beck International Crisis Group

Wade Huntley Liu Institute for Global Studies

토론

Amitav Acharya IDSS

Dewi Fortuna Anwar IIS

Paul Evan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Zhu Feng Peking University

Gordon Flake Mansfield Foundation

Peter Geithner Harvard University

Balbina Hwang Heritage Foundation

Surin Pitsuwan Thai Parliament

Scott Snyder Asia Foundation

Edward Reed Asia Foundation

Jin Wei Tsinghua University

김경원 EAI 이사 김병국 EAI 원장 · 고려대

김선혁 EAI 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 · 고려대

길정우 중앙일보 류근일 조선일보

송근준 법무법인 광장 이대훈 참여연대

이신화 고려대 이해훈 한나라당 의원

이흥구 EAI 이사장 임혁백 고려대

정영태 민노당 정책조정위원장

한승주 EAI 이사 · 고려대 한용섭 국방대

발표

김성한 고려대

김태현 EAI 외교안보센터 소장 · 중앙대

남궁곤 이화여대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 고려대

Robert Shapiro Columbia University

Benjamin Page Northwestern University

Steven Kull University of Maryland

토론

김명섭 연세대

김병국 EAI 원장 · 고려대

민병원 서울산업대

이옥연 서울대

국민의식을 통해 본 한미동맹의 과제와 비전



이내영

한미동맹 여론조사

- 2006 EAI · 한국일보
"정치안보의식조사"
- 2006 EAI · 미디어다음
"정치안보 전문가 및 경제전문가
한미관계 인식 조사"
- 2006 EAI · 매일경제
"경제 · 경영학자 한미 FTA 설문조사"
- 2006 EAI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정당-지지자 충동성 조사"
- 2005 EAI · 중앙일보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여론조사"
- 2005 EAI "FDI 여론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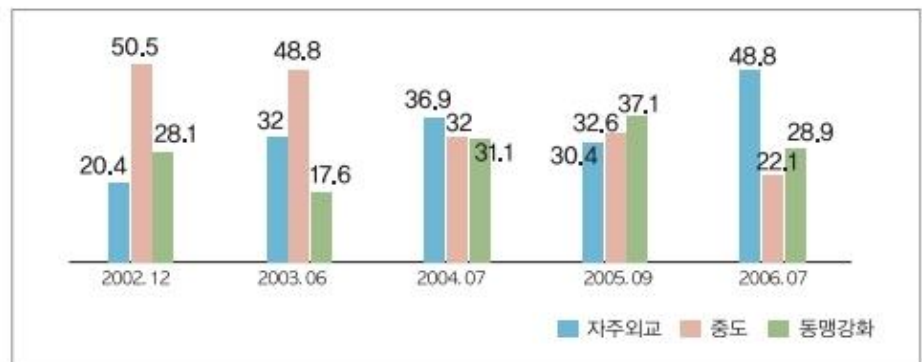
한미동맹을 북핵동맹의 단계로 끌어올리려면 한미동맹이 짊어진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민의를 읽어내는 동시에 전문적 지식을 쌓아온 지식사회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 EAI는 민의의 실체를 파악하고 전문가의 견해를 살펴보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한미동맹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당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상황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살피기 위해서이다.

한미동맹과 경제

안보 리스크를 줄여야 경제가 산다는 것은 분단국가인 한국으로서는 잊어서는 안 되는 철칙이다. 그 철칙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한미동맹이다. EAI는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임원 169명을 대상으로 안보와 경제의 관계를 분석하는 FDI 여론조사를 2005년 상반기에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한반도 안보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향후 북한핵 처리과정에서 한미양국 간의 갈등이 증폭될 경우 한국에 대한 투자를 줄일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미동맹의 이완을 경계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

친미 · 반미를 넘어서야

한미동맹의 국민적 지지기반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온 EAI 안보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미관계에 대한 여론의 추이는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기 보다 한반도 안보정세에 따라 급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추이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강화된 실리적 안보개념에 뿌리를 둔 동맹의식이 일반국민의 의식 속에 동시에 내재하고 있다가 의식의 중심이 상황변화에 따라 동맹과 자주 사이를 오가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결정자가 이러한 이중성을 간과한 채 민심을 반미 대 친미로 나누고 상황변화에 따라 반미 아니면 친미로 정책을 바꾸면 결국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정당은 불안정적이고 가변적인 여론이 아니라 장기적 비전과 철학에 따라 한미동맹의 과제를 다루어야 한다.



자료 :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미국의 안보전략도 달라져야

EAI는 한미동맹이 건강하려면 미국 역시 세계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 외교안보전략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기 위해 EAI는 국제여론조사 컨소시움에 한국의 대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관한 국제여론조사 컨소시움

- 2007 BBC · EAI · 매일경제 "27개국 국제현안조사"
CCGA · WPO · EAI "17개국 국제대외인식조사"
- 2006 BBC · EAI · 매일경제 · 한국리서치 "35개국 국제현안조사"
CCGA · EAI "동아태 7개국 '친디아의 부상' 대외인식조사"
- 2005 GlobeScan · EAI · 매일경제 "23개국 국제현안조사"

한미 FTA를 통한 동맹강화

EAI는 매일경제신문과 공동으로 한국의 대표적 경제 · 경영학자 100명으로 패널을 구성하여 연간 2~3회 전문가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6년 8월에는 한미 FTA가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정치권이 이념적으로 양극화됨에 따라 한미 FTA와 관련된 논쟁에 균형 감각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한미 FTA 전문가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EAI · 매일경제 여론조사패널은 매경이코노미스트상 · 정진기언론문화상 · 한국경제학회 청람상 · 학술원-문화관광부 우수도서상 · 통합경영학술대회 논문상 · 한미경제학회 이코노미스트상 수상자 등 1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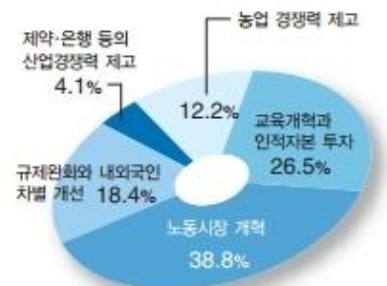
한미 FTA에 관한 제언

- "성공한 나라치고 개방 안한 곳은 없다." 이근 -서울대
-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 정치적 문제에 집착해 다른 사안과 관련된 실익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강호상 -서강대
- "한 · 미 FTA로 인한 이익은 한 · 미 FTA로 손실을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수용 -서강대
- "국민을 설득해 가면서 한 · 미 FTA 협상에 적극 임해 우리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박세일 -서울대
- "한미 FTA가 체결된다고 해서 생산성이 증대되지는 않는다.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노력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 이종화 -고려대

참여 연구자

- 강원택 EAI 시민정치패널 위원장 · 숭실대
- 김민전 경희대
- 김병국 EAI 원장 · 고려대
- 김장수 고려대 평화연구소
- 김태현 EAI 외교안보센터 소장 · 중앙대
- 남궁곤 이화여대
- 민병원 서울산업대
- 배진석 EAI 객원연구원
- 서현진 상신여대
- 송문희 EAI 연구원
- 이근 EAI 경제추격센터 소장 · 서울대
-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 고려대
- 이상협 EAI 연구원
- 이숙종 EAI 국제여론조사팀장 · 성균관대
- 이시영 중앙대
- 이재열 서울대
- 이태환 세종연구소
- 이현우 서강대
- 임성학 서울시립대
- 장진호 연세대
- 정원철 EAI 선임연구원
- 정한울 EAI 선임연구원
- 최영종 가톨릭대
- 한준 연세대

한·미 FTA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선결조건



자료 : 매일경제 2006년 9월 3일

북한정책 : 냉전을 뒤로 하고 햇볕정책을 넘어서

변환의 시대에 북한은 한국이 개방과 개혁의 길로 이끌어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누려야 할 동포이자 군사적으로 억지하고 견제해야 하는 핵확산 위협의 한 진원지이다. 게다가 이러한 이중적 과제는 남과 북을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묶는 한민족 내부의 문제이자 동북아시아 지역열강의 이해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사회의 문제이다. 이러한 이중의 양면성은 현실이다. 북한을 동포로 껴안는다고 해서 그 군사적 위협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우리끼리” 민족공조에 나선다고 해서 미·중·일의 이해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중의 양면성에서 벗어나는 모순과 긴장을 회피하기 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평화와 번영의 길을 북한의 “안”과 “밖”에서 모색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하영선

“북한이 최종적으로 체제변화의 위험성 때문에 수령체제 옹위의 마지막 보루인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하는 경우에 북핵 문제는 비로소 그 해답을 찾게 될 것이다.”

북한 “밖”의 세계

핵포기·관계정상화·경제지원·평화체제·인권·반테러라는 여섯 개의 현안이 어떠한 순서로 어떻게 다루어져야 평화와 번영이 올 것인가 하는 마(魔)의 육각관계 문제에 대해 한국 나름의 전략을 구상하기 위하여 EAI 국가안보패널은 북한 “밖”의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미·중·일 간의 각축전을 분석하고 남·북한의 대응을 살핀다.

국가안보패널이 제안하는 대북한 정책의 기초

- * 북한핵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 *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 수단으로 풀고 경제적 문제는 경제적 수단으로 해결한다.
- * 한미동맹을 대북한 정책의 중속변수로 삼아서는 안 된다.
- * 상호주의의 정신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간다.
- *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원조를 안정되게 추진한다.
- * 인권정책의 정치화 위험성을 경계하면서도 북한주민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다.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국가안보패널은 2005년 9.19 공동성명 직후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팀’을 구성하였고 7개월 간의 토론과정을 거쳐 단행본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를 출간하였다.

국가안보패널 북한정책보고서

- 제 1호 북핵문제와 6자회담 하영선·전재성 2004년 6월
- 제 4호 [개정본] 북핵문제와 6자회담 하영선·전재성 2004년 10월
- 제 6호 북한체제위기와 한국의 대북정책 신성호 2005년 1월
- 제11호 [2차개정본] 북핵문제와 6자회담 하영선·전재성 2006년 1월
- 제13호 확산안보구상과 한반도 신성호 2006년 1월
- 제14호 한반도 평화체제 전재성 2006년 7월
- 제15호 강압외교 신성호 2006년 7월
- 제16호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박종철 2006년 8월
- 제17호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고민 서병훈 2006년 8월
- 제18호 북한경제개혁을 위한 남북경협 오승렬 2006년 10월
- 제19호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진단과 처방 하영선 2006년 11월

북한 “안”의 세계

평화와 번영은 북한 밖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안보적 갈등과 경쟁만 아니라 그 “안”에서 개혁·개방의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의 향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EAI 북한연구패널은 북한 “안”의 세계를 주제로 삼아 평화와 번영의 길에 대해 논한다. 과연 북한의 수령체제가 핵포기·관계정상화·경제지원·평화체제·인권·반테러라는 마의 육각관계를 풀 수 있는 방향으로 체제를 개혁하고 개방시키고 있는지가 북한연구패널의 연구대상이다.

북한연구패널 보고서

제1호 북핵문제 해결의 경제적 수단 : 보상과 제재의 효과와 한계 박종철 2006년 6월

제2호 미국의 북한인권정책과 북한의 체제위협 이대근 2006년 6월

제3호 개성공단의 성과와 한계 최신림 근간



왼쪽부터 류길재 박종철

“인권을 도덕적 명령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이상주의적 외교정책은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인권을 체제전환의 수단으로 삼는 과도한 정치적 접근도 한계가 있다. 보다 현실주의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은 북한의 안보적 관심을 고려하면서 북핵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다.” (이대근)

북한연구패널

류길재 위원장 ·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김병국 EAI 원장 · 고려대

박종철 통일연구원

신종대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유진석 숙명여대

이대근 경향신문

최신림 미래와경제연구소

홍용표 한양대



한국인의 대북한 인식 여론조사

북한 밖의 세계에서 평화와 번영의 가들을 다지고 그 안을 개혁과 개방의 길로 들어서게 하기까지에는 한국이 구상하는 전략 역시 큰 변수가 된다. 문제는 한국 정치권 내에서 대북한 정책이 보수와 진보 진영의 이념적 편가르기에 동원되고 당파적 정쟁의 수단으로 추락한지 이미 오래라는 사실이다. EAI 여론분석센터는 이러한 정치권과 달리 국민 사이에서는 “조건부 대북한 지원”에 상당한 수준의 컨센서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정기적 여론조사를 통해 밝히고 있다.

대북한 인식 여론조사

2006 EAI · 한국일보 “정치안보의식조사”

2006 EAI · 미디어더움 “정치안보 전문가 및 경제전문가 한미관계 인식 조사”

2005 EAI · 중앙일보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여론조사”

2005 EAI “FDI 여론조사”

참여연구자

강원택 EAI 시민정치패널 위원장 · 숭실대

김민전 경희대

김병국 EAI 원장 · 고려대

김장수 고려대 평화연구소

김태현 EAI 외교안보센터 소장 · 중앙대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 고려대

이상협 EAI 연구원

이시영 중앙대

이재열 서울대

이현우 서강대

장진호 연세대

정원철 EAI 선임연구원

정한울 EAI 선임연구원

최영종 가톨릭대

중국과 동아시아

세계의 권력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권력이동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고 그 추동력은 경제이다. 지정학적 위치상 중국의 부상을 체감할 수밖에 없는 한국은 심각한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다. 두자리 수의 성장을 지속하는 중국은 한국경제에게 무역과 투자의 지평을 넓혀주는 기회의 땅일 수 있고 그 산업기반을 위축시키고 잠식하는 위협의 원천일 수 있다. 게다가 경제력은 언젠가는 군사력으로 전환된다는 국제정치의 법칙을 고려하면 중국경제의 성장은 곧 한국의 안보적 문제가 된다. 어떻게 하면 중국이라는 경제성장의 배에 올라 탄 한국이 산업공동화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보적 종속을 피하는가가 관건이 되는 것이다.

경제적 리스크

참여연구자

이근 EAI 경제추적센터 소장 · 서울대
 김병국 EAI 원장 · 고려대
 배진석 간사 · EAI 객원연구원
 강영삼 서울대 석박사통합과정
 김부용 서울대 박사과정
 송문희 EAI 연구원
 송인영 EAI 인턴 · 카네기멜론대
 이지선 서울대 박사과정
 Nathaniel Stankard
 Henry Luce Scholar

EAI는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다양한 구조적 불확실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한국의 대중국 전략을 논한다는 것이 공허하다는 인식 아래 중국경제의 향후 15년을 결정하게 되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를 《2020 중국 리스크》로 발표하였다.



왼쪽부터 김병국 배진석 이근



2020 중국 리스크

*중국의 성장은 기회일까 위협일까 ... 이 책은 여기에 리스크론을 보탠다. ... 학술적 성격이 강하지만 중국에서 사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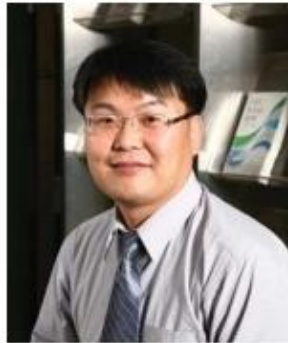
을 펼치고 있는 기업은 물론 중국 펀드를 사놓은 투자자들까지 돌취물 만한 제안을 내놓고 있다. [조선일보 2007년 4월 14일]

중국경제에 대한 EAI의 예측

- * 최근 악화하고 있는 소득분배는 2020년까지 호전되지 않을 것이어서 심각한 체제불안 요인이 될 것이다.
- * WTO 가입과 전반적 개방에도 불구하고 주요 분야의 기업에 대한 외국인 자본 제한만은 최소한 2010년대 중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 * 중국의 석유수입 의존도는 현재의 40% 정도에서 2020년에 6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석유 공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작지만 가격급등이 국제적 석유 문제의 본질로 등장할 것이다.
- * 당분간 중국경제는 전반적 투자과잉과 이의 조정 필요성 등이 맞물려 호황에서 단기적으로 버블 붕괴로의 반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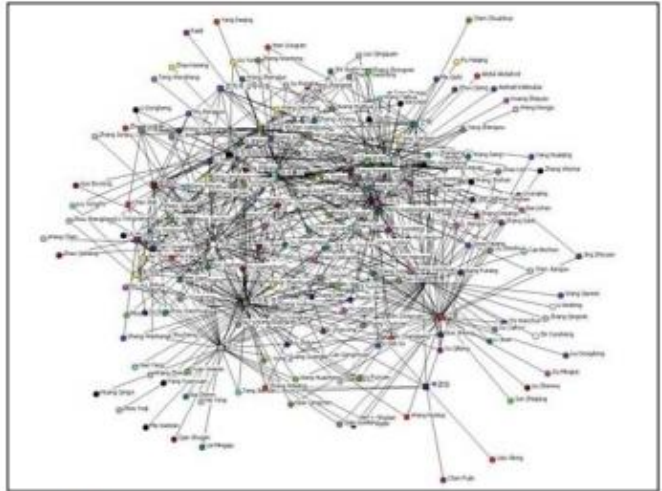
중국 당·국가체제 연구

중국이 추진하는 경제·안보 전략의 성격과 변화추이를 가능하는 동시에 그 전제조건인 정치안정을 분석하려면 일차적으로 중국 당·국가체제 내의 권력구조부터 연구해야 한다. 레닌주의·맑시즘에 뿌리를 두고 정보의 흐름을 강력히 통제하는 중국 당·국가체제의 권력 구조에 대한 연구는 권력서열의 변동과 직책이동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EAI는 중국 당·국가체제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인사들의 경력 데이터를 전산화시켜 정기적으로 중국 당·국가체제 내의 권력이동을 분석하고 파벌간 세력분포의 변화를 추적한다.



서상민

중국 엘리트의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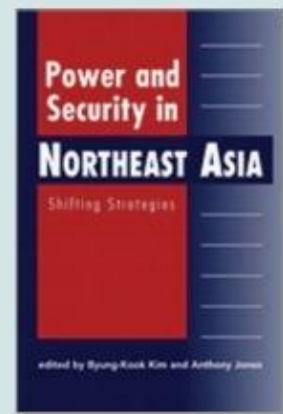


자료 : EAI

Power and Interest in Northeast Asia: Shifting Strategies

EAI는 2007년 8월 미국 소재의 Lynn Reinner Publishers를 통해 *Power and Interest in Northeast Asia: Shifting Strategies*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중국의 부상에 따르는 안보적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위험관리(해지)하기 위한 각 국가의 안보 대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 * 미국은 "군사변환"과 "변환외교"의 전략으로 중국에 맞선다.
Jonathan Pollack, Naval War College
- *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 속에서 "정상국가"로 발돋움하고 미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통해 일본 자신의 국제적 역할을 제고하는 "소(小)실천주의"(activism lite)를 구상하고 있다.
Yamatoto Yoshihide, University of Tokyo
- * 러시아가 중국과의 정치적 연대에 나서는 것은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값을 중국과의 연대를 통해 부풀려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것이다.
Alexander Lukin, Moscow St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 * 중국은 자신의 부상을 가능케하는 지역안정의 틀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국이 "1국가 2체제"의 대원칙에 상처를 내지 않는 한 미국의 헤게모니를 인정하는 해지순응전략(hedged acquiescence)을 구사하고 있다.
Minxin Pei,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Co-editors: Byung-Kook Kim and Anthony Jones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동아태 지역

참여연구자

김병국 EAI 원장 · 고려대
 김장수 고려대 평화연구소
 김태현 EAI 외교안보센터 소장 · 중앙대
 남궁곤 이화여대
 민병원 서울산업대
 배진석 EAI 객원연구원
 송문희 EAI 연구원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 고려대
 이상협 EAI 연구원
 이숙종 EAI 국제여론조사팀장 · 성균관대
 이재열 서울대
 이태환 세종연구소
 장진호 연세대
 정원철 EAI 선임연구원
 정한울 EAI 선임연구원
 최영종 가톨릭대
 한 준 연세대

중국의 부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든 부정적인 방향으로든 한국의 미래를 변화시킬 것은 분명하지만 정착 중국인이 북한핵 위기 등의 현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국제사회에서의 중국 자신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아울러 한국이 지역 전체의 맥락 속에서 대중국 정책을 구상해야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세계가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역시 불확실하다. 따라서 EAI 여론분석센터는 대중국 전략의 구상에 힘을 보태고자 다양한 국제여론조사 컨소시움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세계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과 중국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조사한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이내영 정한울 이상협



EARS Series 5

《중국의 부상, 위협인가 기회인가 :
 세계여론을 통해 본 중국의 현재와 미래》

중국관련 국제여론조사 컨소시움

2007 BBC · EAI · 매일경제 "27개국 국제현안조사"
 2007 CCGA · WPO · EAI "17개국 국제대외인식조사"
 2006 BBC · EAI · 매일경제 · 한국리서치 "35개국 국제현안조사"
 2006 CCGA · EAI "동아태 7개국 '친디아의 부상' 대외인식조사"
 2005 GlobeScan · EAI · 매일경제 "23개국 국제현안조사"

매력국가 한국

변환의 시대에 한국이 기댈 것은 군사력과 경제력뿐이라는 것은 무지한 생각이다. 군사력이 취약하고 경제력이 부실하면 국제사회의 미아가 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튼튼한 경제의 운전석에 앉아 국제사회에 참여한다고 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독식하려는 놀부심보로 자신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행사하려 든다면 오히려 다른 국가의 반발과 견제에 시달릴 뿐이다. 이웃나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국가가 되어야 군사력과 경제력이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열강의 대열에 서기에는 작고 소국의 카테고리에 놓이기에는 큰 한국이 주력해야 할 것은 “매력국가”가 되어 타국가를 우군으로 끌어들이고 군사력과 경제력에 소프트 파워를 가미하는 것이다.

한국인의 정체성

문제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존경받고 신뢰받는 “매력국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문화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이다. EAI 시민정치패널은 변환의 시대가 소프트파워의 시대라는 인식 아래 한국인의 마음속에 학연·혈연·지역의 폐쇄적 연고주의를 떨쳐버리고 타자를 꺼안고 세계를 품으려는 새로운 열린 힘이 싹트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시작이 2005년에 이루어진 “한국인 정체성 조사”이다. 그 결과는 단행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로 출간되었다.

후원 현대그룹·중앙일보



강원택

EAI 시민정치패널

강원택 위원장·승실대
 김병국 EAI 원장·고려대
 김민전 경희대
 김장수 고려대 평화연구소
 김태현 EAI 외교안보센터 소장·중앙대
 서현진 성신여대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고려대
 이재열 서울대
 이현우 서강대
 임성학 서울시립대
 전영기 중앙일보
 정원철 EAI 선임연구원
 정한울 EAI 선임연구원
 신창운 중앙일보
 한 준 연세대

EAI 여론분석센터가 진단하는 한국의 정체성

- * 한국인은 모두가 단군의 지손으로서 혈연공동체를 구성한다는 신화가 이주노동자·국제결혼·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인해 깨지고 있다.
- * 혈연적 민족주의는 국적을 기준으로 피아를 구분하고 부국강병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민족주의”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 * “대한민국 민족주의”는 모든 주변국에 대한 배타적 불신으로 특징된다.
- * 이러한 닫힌 의식으로는 타국가를 우군으로 끌어들이는 “매력국가”가 될 수 없다.
- * 한국은 세계를 품으려는 열린 민족주의로 재무장되어야 한다.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한국의 소프트 파워

참여연구자

EAI 연구팀

이숙종 위원장 · 성균관대

김병국 EAI 원장 · 고려대

김하정 EAI 선임연구원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 고려대

이신화 고려대

정한울 EAI 선임연구원

지병근 고려대 평화연구소

CCGA 연구팀

Christopher Whitney CCGA

Steven Kull Maryland University

David Shambaugh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Takasi Inoguchi Tokyo University

한국은 “매력국가”가 되어야 한다. 부국강병이라는 냉전시대의 논리로는 세계화 · 정보화 · 민주화라는 변환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다. 하지만 세계를 자신의 마음 속에 품어내고 타자의 신뢰를 사려는 의지가 여전히 한국에게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그러한 의지가 저절로 싹을 날을 그냥 기다릴 수는 없다. 국제무역으로 경제를 키우고 동맹으로 평화를 지키는 현실 때문이다. EAI는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키운다는 자세로 한국문화에서 보편적 가치를 찾고 국경을 넘는 인간사랑의 정신을 발견하고자 한다. 아울러 소프트 파워의 힘을 국민에게 알리는 대중강연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매력한국과 동아시아

변환의 시대에 누가 어떠한 성격의 소프트 파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작게는 각 국가가 구상하는 안보 · 번영 대전략이 얼마나 타국가의 지지를 받느냐에서부터 크게는 어느 국가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국가의 자리를 차지하느냐를 결정하는 변수의 하나가 된다. EAI는 변환시대에서의 소프트 파워의 실체를 분석하고 그 주안을 밝힌다는 문제의식 아래 3단계 한 · 미 · 중 · 일 4개국 비교연구에 착수한다.

1단계 한 · 미 · 중 · 일 4개국에서 여론조사를 2008년에 실시하여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의 질과 양을 파악한다. 그 결과는 EAI · CCGA 공동보고서의 형태로 2008년에 발간된다.

2단계 1단계 국제여론조사의 결과에 역사 · 문화 · 정책 데이터를 추가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데이터뱅크를 구축한다. 데이터뱅크는 소프트 파워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세계적 학자들에게 제공되어 연성권력과 지역패권의 관계를 밝히는 2009년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다.

3단계 1단계와 2단계에서의 연구실적에 기초하여 한국의 잠재적 소프트 파워를 가능하고 한국을 매력국가로 발전시킬 정책적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국제학술회의가 2010년에 개최된다.

공동연구 EAI · CCGA

지 원 Korea Foundation

한국 속의 동아시아, 동아시아 속의 한국

한국이 “매력국가”가 되려면 국민이 국경을 뛰어넘는 인간사랑의 정신을 키우고 세계 어디서든 환영 받는 한국적 가치를 생산해야 한다. 매력국가는 정부가 만들 수 없다. 그 추동력은 한국적 가치를 세계화하고 세계적 가치를 한국화하는 문화예술계 · 학계 · 재계이고 국민이다. EAI는 국민이 소프트 파워의 원천이고 그 주체라는 진단 아래 한평생 소프트 파워의 실체에 대해 연구하고 민간외교의 길을 걸어 온 세계적 석학 · 운동가 · 현인을 초빙하여 대중강연회 · 현인회의 · 국제학술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그 첫번째는 Joseph S. Nye 교수(하버드대)가 참여하는 2008년 2월 국제회의이다.

공동주최 EAI · Korea Foundation



이신화

민주대전략

6월 항쟁을 통해 이루어진 대통령직선제는 민주화의 시작이지 그 끝이 아니다. 한국민주주의가 시민사회에 그 뿌리를 확고히 내리려면 안보의 틀을 다지고 번영의 길을 개척하는 “일하는 민주정부”가 있어야 하고 권력을 그 주인인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분권적 거버넌스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권력과 자본 및 명예를 가진 한국사회의 상층이 국민의 믿음을 받는 “신뢰사회”가 되어야 하고 공공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반대의 권리를 행사하고 공익을 존중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책임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EAI 민주대전략 연구는 “일하는 민주정부”가 “책임있는 사회”와 함께 한국민주주의의 선진화에 나서는 것을 꿈꾼다.

일하는 민주정부

가장 큰 명분은 “안보”이고 “경제”이다. 국민이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구가하는 것보다 더 큰 명분은 없다. 명분과 실리를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한 민주정부는 국민의 눈에 무능하고 무지하게 보일 뿐이다. 명분이 곧 실리이고 실리가 곧 명분이라는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일하는 민주정부만이 민주주의를 국민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한다.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참여연구자

장 훈 EAI 거버넌스센터 소장 · 중앙대
김병국 EAI 원장 · 고려대
김은미 이화여대
김의영 경희대
나성린 한양대
송호근 서울대
윤영철 연세대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 고려대
이종훈 명지대
이홍규 한국정보통신대
정진영 경희대

성장의 엔진을 가속화하고 분배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무엇인가는 한국보다 몇 발 앞서가는 선진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고민은 “어디로 가느냐”에 있지 않고 “어떻게 가느냐”에 있다. 선진국이 가르쳐 주는 성장의 길을 따라가려 할 때 피해를 볼 계층이 저항하고 표(標)를 의식하는 정당이 반발한다.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정치적 저항과 반발로 갈 수 없는 상황이다. EAI 거버넌스센터는 경제가 살아나려면 먼저 정치가 올바르게 서야 하고 정부가 굳건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진단 아래 경제적 선진화의 정치적 조건을 밝히고 그 조건을 만들어줄 민주대전략에 대해 연구한다. 그 첫 번째 결과가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이다.



장 훈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경제적 선진화의 정치적 조건

- * 정부를 시장에서 철수시키고 그 역할을 감시·감독에 제한해야 장훈
- * 전문경영인을 정부 인재의 풀에 포함시켜야 이홍규·김병국
- * 사회복지의 확장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풀어야 송호근
- *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에서 탈피해야 김은미
- * NGO의 정치화를 부추길 재정지원에는 신중해야 김의영
- * 언론과 정부의 관계를 건강한 긴장관계로 윤영철
- * 10년간 매년 5.2%씩 성장해야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다 나성린
- * 경제주체들의 기부터 살리자 이내영
- * 경제선진화와 노사관계 이종훈
- * 시장개방에 따르는 사회적 보상은 분명한 원칙과 정확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정진영

신뢰받는 정치의 구현

정부는 나라를 이끌고 국민은 정부시책을 따른다는 통치의 개념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세계화·정보화·민주화라는 삼중변환의 시대에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권력분산이 대세이다. 재계에서부터 시민단체에 이르는 다양한 주체가 권력과 책임을 나누어가지고 공동의 이익을 함께 구현해야 하는 수평적 거버넌스가 수직적 통치의 개념을 밀어내고 정치의 핵심적 구성·운영원리로 자리매김되어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문제는 다양한 권력주체가 아직은 수평적 거버넌스의 이상에 다가서지 못한다는 점이다. EAI 시민정치패널은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각 권력주체의 자기개혁을 장려하기 위하여 25개 파워기관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매년 여론조사를 통해 조사하고 있다.

참여연구자

강원택 EAI 시민정치패널 위원장·숭실대

김병국 EAI 회장 · 고려대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 고려대

이상협 EAI 연구원

이현우 서강대

정하을 EAI 선임연구위원

정원철 EAI 선임연구원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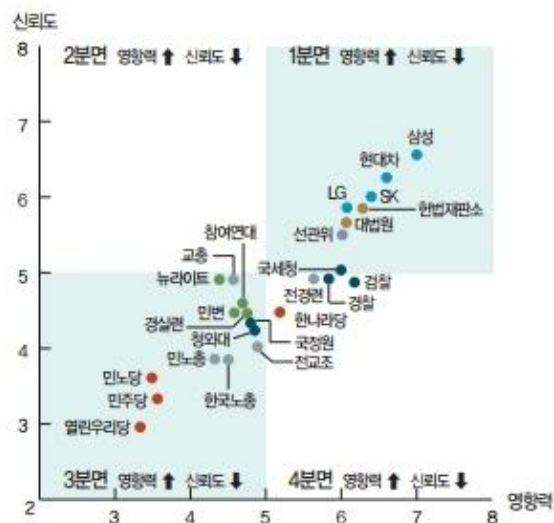
- * 한국의 파워기관 중 국민적 신뢰도와 영향력이 최상위권인 집단은 대기업이고 최하위권은 진보적 정당과 노총이다.
- * 한국의 진보는 국민적 신뢰의 위기에 놓여 있다.
- * 청와대·검찰은 그 힘에 비해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낮다

파워기관 영향력 및 신뢰도 순위

영향력				신뢰도					
2007			2006	2005	2007			2006	2005
순위	기관	점수	순위	순위	순위	기관	점수	순위	순위
1	삼성	7.00	2	1	1	삼성	6.55	2	1
2	현대차	6.59	1	2	2	현대차	6.25	1	2
3	SK	6.40	3	4	3	SK	6.01	3	3
4	한법재판소	6.28	4	3	4	한법재판소	5.86	5	4
5	검찰	6.17	7	7	5	LG	5.85	4	5
6	LG	6.08	5	6	6	대법원	5.65	6	6
7	대법원	6.07	8	5	7	선관위	5.51	-	-
8	선관위	6.02	-	-	8	국세청	5.03	9	15
9	국세청	6.00	9	10	9	경찰	4.92	6	7
10	경찰	5.83	6	8	10	전경련	4.91	8	12
11	전경련	5.63	10	9		뉴라이트	4.91	14	12
12	한나라당	5.17	11	14	12	검찰	4.87	10	9
13	교총	4.95	12	17	13	교총	4.60	11	16
14	청와대	4.89	13	11	14	참여연대	4.57	15	8
15	전교조	4.81	15	15	15	한나라당	4.48	13	17
16	국정원	4.80	18	16		경실련	4.48	11	11
17	경실련	4.72	14	13	17	민변	4.47	16	9
18	참여연대	4.70	16	12	18	국정원	4.34	18	22
19	민변	4.57	19	22	19	전교조	4.26	17	12
20	한국노총	4.51	20	18	20	청와대	4.03	21	19
21	뉴라이트	4.38	17	19	21	한국노총	3.85	21	20
22	민주노총	4.32	21	21		민주노총	3.85	21	20
23	민주당	3.56	22	-	23	민주당	3.62	20	18
24	민노당	3.49	23	23	24	민노당	3.33	19	-
25	열린우리당	3.34	24	19	25	열린우리당	2.95	24	23

자료: 중앙일보

25개 파워기관의 영향력과 신뢰도



자료 : 중앙일보 2007년 7월 3일

분권헌법 : 선진화로 가는 길

분권화연구팀

분권화연구 실무팀

최병선 팀장 · 서울대
김병국 EAI 원장 · 고려대
김병기 중앙대
김선혁 고려대
전영평 대구대
하연섭 연세대
홍준형 서울대

분권화패널

최병선 공동위원장 · 서울대
임현진 공동위원장 · 서울대
권순만 서울대
김병국 EAI 원장 · 고려대
김병기 중앙대
김선혁 고려대
김태유 서울대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박정수 이화여대
이만형 충북대
이재열 서울대
이종화 고려대
이흥규 한국정보통신대
전영평 대구대
정운수 명지대
하연섭 연세대
홍준현 중앙대
홍준형 서울대

EAI 민주주의연구센터

김선혁 소장 · 고려대
정원철 EAI 선임연구원
정재진 연구원

분권화세미나 발표자

강명구 아주대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분권지원팀장
백성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성경룡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이기우 인하대
홍정선 연세대

민주주의는 견제가 가능한 분권적 권력구조에서 그 싹이 틈다. 선진화 역시 각계각층이 서로 각자의 정책대안을 놓고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분권적 권력구조에서 그 길이 열린다. 견제 없이 민주주의는 없고 경쟁 없이 선진화 역시 가능하지 않다. EAI 민주주의연구센터는 한국민주주의 안에 견제의 장치를 구축하고 경쟁의 정신을 불어넣는다는 목적 아래 2005년 상반기에 16명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15명을 방문하여 지원을 부탁하고 같은 해 9월에 분권헌법(안) 구상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는 2007년 11월에 발표된다.

후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왼쪽부터 최병선 임현진 김선혁



분권화 연구 세미나

1차 워크숍

일시 2006년 1월 24일

발표 홍정선 연세대학교 법과대 교수 ·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과대 교수

주제 헌법과 지방분권 _ 국회가 법률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 및 책임을 확대하는 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과연 분권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개헌을 추진해야 하는가는 신중히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법이 아니라 국회가 자신의 기득권을 축소시키는 분권화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정치적 문제 때문일 것이다.

2차 워크숍

일시 2006년 2월 7일

발표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분권지원팀장 · 이기우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주제 헌법과 지방자치법 _ 어느 수준에서 어떠한 수단으로 헌법이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어떻게 헌법과 하위 실행법인 지방자치법을 서로 연계시키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 · 명시적 대안을 현실성있게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다.

3차 워크숍

일시 2006년 2월 24일(금)

발표 강명구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성경룡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주제 지방분권화의 이념과 전략 _ 권력구조를 지방분권 대 중앙집권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권력이 분산되면 분산될수록 조정이 필요한 만큼 지방과 중앙은 한 배를 같이 탄 공동체이다. 양자 사이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해하면서 분권화의 이념과 전략을 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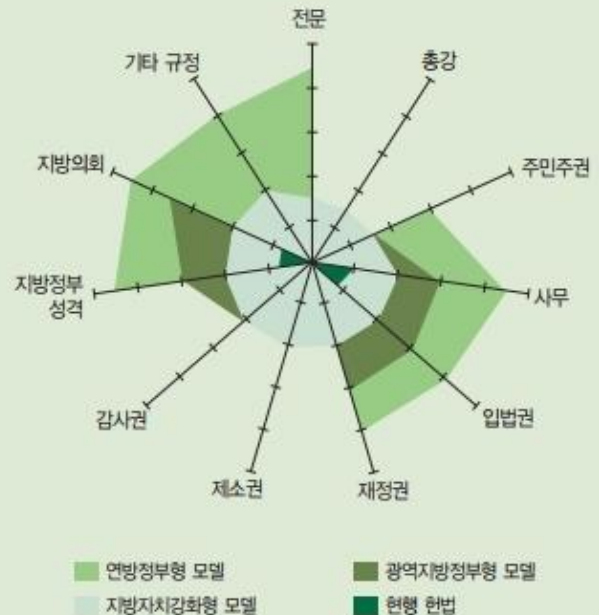
분권헌법 : 선진화로 가는 길

“EAI는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개헌정국으로 빨리 들어가기 이전에 분권화를 국민적 아젠다로 끌어올려 개헌논의의 외연을 넓히고자 한다. 구시대적인 5년 단임제 대 4년 중임제의 개헌담론을 청산할 때가 다가온 것이다.”

“이 책은 1 장은 국정운영시스템의 선진화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서 분권화를 다루고 2장은 분권헌법 없이는 분권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명제를 세운다. 3장은 분권화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줄여 온 선진 5개국의 역사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분권화로 가는 다양한 길을 모색하고 4장은 각각의 길로 나아가려 할 때 있어야 하는 헌법 조문을 11개 국가의 헌법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밝힌다. 5장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동참한 국가에서도 분권이 헌법적 문제로 간주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프랑스·이탈리아·독일의 개헌사례를 분석한다. 지극히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헌담론을 분권화로까지 확대하기를 거부해 온 한국사회에 경각심을 불러넣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1장에서 5장에 이르는 이론적·경험적 논의는 다시 6장의 명제가 되어 대한민국 헌법개정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6장에서 제시되는 개헌론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소폭의 개헌을 전제로 하는 “지방자치강화형”이고 다른 하나는 중폭의 개헌을 가정하는 “광역지방정부형”이다. 마지막 하나는 대폭의 헌법개정이 따르는 “연방정부형”이다. 각각의 개헌론은 4장과 5장에서 분권화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밝혀진 11개 변수에 따라 서로 구분된다.(그림 참조)

한편 7장은 분권헌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민사회가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헌이 분권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정부가 아닌 주민이 분권화의 주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Seoul Consensus

참여연구자

김병국 EAI 원장 · 고려대
손동현 성균관대
송문희 간사 · EAI 연구원
윤순봉 삼성전략기획실
이정우 철학아카데미

근대에 대한 성찰

시대마다 그 “주인”이 있다. 새로운 시대의 주인은 변화의 핵심동력이 무엇인가를 간파하고 있고 그 동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철학적 정신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있다. 아울러 시대변화를 쫓아가고 앞서가는 철학적 정신을 사회제도 전역에 불어넣고 공고화하는 전략적 실천력 역시 갖추고 있다. 18세기 미국이 그러하였다. 중세의 시대를 마감하는 핵심동력으로서의 시장의 힘을 누구보다 먼저 찬양하고 시민의 탄생을 이상화한 것은 스미스의 『국부론』과 로크의 『사회계약론』 및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을 낳은 영국이었고 프랑스였지만 각각의 새로운 철학적 정신을 가장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선두에 서게 된 것은 미국이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시대인 근대에서 패권이 미국의 몫이 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남보다 먼저 시대변화의 핵심동력과 철학적 정신을 간파하고 그 동력과 정신을 남보다 더 철저하게 제도화한 덕분에 근대화의 벤치마킹 모델로 타국가의 눈에 비추어지게 된 것이 미국이었다는 진단이다. 미국이 가진 힘의 원천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보편적 가치의 미국화에 있었다.

21세기 시대정신과 그 주인

21기가 넘는 세월이 흐른 오늘날 세계는 시대가 바뀌고 그 주인이 대체되는 새로운 변혁기에 놓여 있다. 세계화가 지구촌을 하나의 시장으로 재편하는가 하면 정보화는 공간과 시간의 벽을 허물고 삶의 전 영역을 하나의 동일한 시간대로 묶어가고 있다. 게다가 대중적 소비문화의 전지구적 확산 때문

에 자원이 부족하게 되고 삶을 지탱해주는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여기에 두 자리 수의 고속 성장을 지속하는 중국까지 감안하면 자원과 생태계의 문제는 단순히 가격상승이 아니라 근대적 문명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이 되고 만다. 욕망의 무한충족에 집착해 온 근대 문명의 틀로는 더 이상 21세기의 시대변화를 담아내기 힘든 것이다.

근대의 철학정신이 삶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준거의 틀로서 한계에 부딪힌 만큼 그 정신의 미국식 재해석에 기초하여 등장한 기존의

시대변화를 이끄는 각각의 핵심동력이 지향하는 철학적 정신이 무엇이고 그 정신을 담아줄 새로운 사회가 어떠한 운영원리로 구성되는가에 대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려면 무엇보다 전략적 계산의 차원을 떠나 철학과 사회과학의 벽을 허물고 지식을 한 곳으로 모으는 “통섭”이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 역시 삶의 과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세계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철학적 정신과 제도에 대한 구상으로 분주한 것은 이러한 시대변화의 당연한 결과이다. 시장의 전지구적 팽창으로 불거진 삶의 문제는 역설적이지만 시장의 논리로만 풀 수 있다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천명되는가 하면 이러한 세계화의 논리에 제동을 걸고 수많은 불평등의 격차를 국가 안팎에서 해소하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컨센서스”가 구상되고 “코펜하겐 컨센서스”가 발표되었다. 게다가 민족자결의 원칙 아래 국가 중심으로 점진적·단계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지구촌 전체의 공동번영으로 가는 길이라는 “베이징 컨센서스”까지 고려하면 21세기는 오히려 컨센서스가 아니라 논쟁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쟁은 시대변화의 성격과 방향을 가능해보려는 순수한

지적 노력의 결과이자 다가오는 시대를 지배할 새로운 철학적 정신의 주인이 되고 시대변화의 핵심 동력을 거스르기보다 그에 올라타 국력을 배가하려는 전략적·권력적 계산의 결과이다. 한국도 이러한 성찰의 무대 위에 서야 한다. 시대변화를 이끄는 각각의 핵심동력이 지향하는 철학적 정신이 무엇이고 그 정신을 담아줄 새로운 사회가 어떠한 운영원리로 구성되는가에 대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려면 무엇보다 전략적 계산의 차원을 떠나 철학과 사회과학의 벽을 허물고 지식을 한 곳으로 모으는 “통섭”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EAI는 2006년 11월에 “Seoul Consensus” 기획연구팀을 출범시키고 인문·사회과학계의 미래학 지식과 지혜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주례세미나의 개최에 나섰다. 주례세미나는 각 학문분야에서 최첨단 리서치로 선두를 달리는 학자를 발표자로 초빙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목표는 세계화·정보화·생태계 위기로 등장하게 되는 새로운 사회질서의 구성·운영원리를 밝히는 보고서를 2008년 중순까지 출판하는 것이다.



김병국
손동현
이정우

주례세미나 연사 및 주제

이정모 성균관대	인지혁명·인간의 마음·인공물의 공진화
최재천 이화여대	통섭: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
정하웅 KAIST	네트워크 과학
이종관 성균관대	사이버문명과 포스트휴먼
최종덕 상지대	권력에 대한 철학적 상상력의 진화론적 해석
이필렬 방송통신대	석유고갈과 기후변화: 에너지전환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영선 서울대	네트워크 지식국가: 늑대거미의 다보탑 쌓기
임혁백 고려대	IT혁명과 세계화 시대의 정치
김용학 연세대	사회연결망 이론
송호근 서울대	한국복지국가의 태동
김현미 연세대	국제결혼을 통해 본 젠더정치학
김성태 성균관대	지식기반사회의 정보정책과 전자거버넌스
최정호 울산대	글로벌 거버넌스 시대의 문화
정용덕 서울대	국가발전과 거버넌스
김경원 삼성경제연구소	2000년대 세계경제 및 금융의 흐름과 향후 5년
김상배 서울대	21세기 권력의 성격과 권력관계 변화
임천순 세종대	2020 청소년 교육의 트렌드와 정책과제
이승환 고려대	"덕스러운 자유주의"의 모색
정영록 서울대	위협과 기회로서의 중국
복득규 삼성경제연구소	실리콘밸리의 성공요인과 한국에의 시사점

자본주의 국제학술회의 시리즈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한 1997년 이후로 개발국가가 설 땅은 사라지고 이제는 시장의 논리가 전 세계를 획일적으로 지배하는 “국경 없는 지구촌”의 시대에 들어섰다는 진단이 무성하다. 그 국경 없는 시대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가 감시·감독의 역할에 그치는 영미식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처방 역시 하나의 대세로 자리를 굳힌 지 오래이다. EAI는 과연 영미식 경제모델 이외의 다른 제3의 길이 21세기에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근본적 질문을 원점에서 던지고자 한다. 그 문제의식이 어떻게 폴리냐에 따라 “일하는 정부”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가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세계적 석학이 참여하는 자본주의 국제학술회의 시리즈가 실증적 분석과 대안모색의 장이 된다.

Varieties of Capitalism

EAI는 UCSD 및 고려대 BK21 동아시아연구단과 공동주최로 2005년 9월 9일부터 이틀 동안 세계화의 시대에 동아시아 각 국가의 자본주의 체제가 보이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밝히는 국제학술회의를 가졌다. 세계화라는 거대한 변환의 동력에 따라 동질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자본주의 체제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동질화에 분명한 한계를 그어주는 역사의 “무게” 역시 밝히기 위해서였다. 이론적·경험적 논의의 바탕은 Peter A. Hall과 David Soskice가 출판한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였다. 국제학술회의의 결과물은 University of Toronto에서 열리게 되는 국제학술회의의 아젠다가 된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Ravenhill Gereffi
Gourevitch Soskice





왼쪽부터 Peng 김은미 Noble

Corporate Restructuring, System Restructuring

EAI는 Varieties of Capitalism 국제학술회의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2006년 6월 22일부터 서울 동안 한국·중국·일본의 기업구조조정을 사례로 삼아 세계화 시대에서의 시장경제의 다양성을 분석하고 개혁정책의 상이성을 살피는 국제학술회의를 Stanford University의 Walter H. Shorenstein Asia-Pacific Research Center와 함께 공동주최하였다. 목표는 기업구조조정이 단순히 기업이 아니라 체제 전체의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세계화의 시대에도 다양한 발전의 길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구결과물은 2개의 단행본으로 미국에서 출판된다.

참석자

Jennifer Amyx University of Pennsylvania
Yong Shun Cai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ukjin Ch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Mary Gallagher Michigan University
Sarah Ingmanson Morgan Stanley
Heon-Joo Jung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o-youn Jung Stanford University
Byung-Kook Kim EAI · Korea University
Eun Mee Kim Ehwa Womens University
Jung Kim Yale University
Zheng Lu Stanford University
Gregory Noble Tokyo University
Jean Oi Stanford University
Ito Peng University of Toronto
Kay Shimizu Stanford University
Worawut Smuthkalin Stanford University
Ji-yeoun Song Harvard University
Carl Walter JP Morgan Chase
Yves Tiberghie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Kellee Tsai Johns Hopkins University
Mary E. Gallagher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참석자

David Soskice Duke University
Bryan Ritchie Michigan State University
Jae-Jin Yang Yonsei University
Stephan Haggard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Ito Peng University of Toronto
M. Ramesh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Isabela Mares Stanford University
Peter Gourevitch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Krislert Samphantharak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Hyug-Baeg Im Korea University
Gregory Noble University of Tokyo
John Ravenhill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Byung-Kook Kim EAI · Korea University
Joseph Wong University of Toronto
Moo-Kwon Chung Yonsei University
Yves Tiberghie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Gary Gereffi Duke University

책임있는 사회

권리가 있다면 책임이 있어야 한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익을 고려하는 책임의식 없이 행사되는 권리는 권리 그 자체의 사회적 기반을 허물어버린다. 타인이 자신의 권리에 상처를 내는 상대의 권리행사를 내버려둘 리 없기 때문이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명제는 보수와 진보의 벽을 초월하는 인간 삶의 기본원칙이다.

참여정치의 Rule Making

참여연구자

한국

김병국 EAI 원장 · 고려대

김선혁 EAI 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 · 고려대

정원철 EAI 선임연구원

대만

Yun-han Chu Academia Sinica

Chin-en Wu Academia Sinica

폴란드

Grzegorz Ekiert Harvard University

Jan Kubik Rutgers University

헝가리

Bela Greskovits

Central European University

Jason Wittenberg UC, Berkeley

“진보의 위기”라고 한다. 선거정치에서 경쟁의 다른 축을 형성하는 보수가 반겨서는 안 되는 일이다. 진보가 건강해야 보수가 건강하고 보수가 강력해야 진보가 강력하다. 진보를 위기로 내몬 참여정치의 실패는 진보적 운동가를 넘어서는 한국사회 전체의 고민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EAI 민주주의연구센터는 그 실패의 일차적 원인을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호소하고 절차가 아니라 힘의 논리를 따르는 투쟁적 동원문화에서 찾는다. 타인을 존중하고 공익을 따져보는 참여정치가 가져야 하는 원칙과 절차가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성찰 없이 무조건 투쟁에 들어가면 단기적으로는 목전의 이익을 챙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낭패가 기다릴 뿐이다. EAI 민주주의연구센터는 참여의 원칙과 방식 및 절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에 일조하고 책임있는 진보의 탄생을 주창하기 위하여 1987년 1월 이후에 중앙일간지와 주간지를 통해 보도된 모든 시위를 통계적 데이터로 만들고 있다. 목표는 새로운 참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단행본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연구기획 EAI · Center for European Studies, Harvard University

후 원 중앙일보 · 한국학술진흥재단



시민사회의 역동적 에너지를 선순환 구조로 연결해야

“불법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주문만 할 것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 합법 시위가 불법 시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확신을 심어 줄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치권의 변화도 필요하다. 제도권 정당들이 국민의 의사를 적절하게 파악해 반영한다면 시민사회가 더 이상 거리로 나설 이유가 없을 것이다. 시민사회의 태도 역시 변해야 한다.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공권력에 맞서는 “정당방위”로 불법 시위를 정당화하는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김선혁 [중앙일보 2006년 6월 29일]



사회적 책임경영

기업이 혁신과 변혁의 주체가 되는 “시장의 시대”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기업의 역할에 대한 고전적 논쟁에 중지부를 찍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업이 시대의 주인으로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기업에 대한 사회의 기대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확대되는 것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이 그 힘을 견제하고 싶어하는 심리이다. 기업이 짊어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어디까지인가는 끊임 없이 논쟁에 붙여보고 고민해야 하는 철학적 문제이자 분석적 과제이다. EAI 여론분석센터는 힘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명제 아래 사회책임경영(CSR)이 무엇이고 그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기업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한국의 국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염원하기 때문이다.

후 원 매일경제

협력기관 GlobeScan · 한국리서치

참여연구자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 고려대
 김병국 EAI 원장 · 고려대
 송문희 EAI 연구원
 이 근 EAI 경제추적센터 소장 · 서울대
 이상협 EAI 연구원
 이재열 서울대
 장진호 연세대
 정원철 EAI 선임연구원
 정한울 EAI 선임연구원



왼쪽부터 이재열 정원철 장진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여론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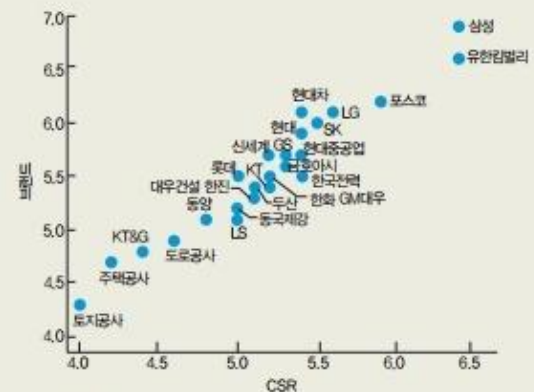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부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하나의 당위에 지나치게 치중됨으로써 소비자 권익에서부터 인권과 환경에 이르는 새로운 탈물질적 가치의 창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소홀히 다루는 문제가 있다.
- *기업은 생색내기식 자선활동보다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우선시해야 한다.
- *한국은 국가규제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가규제 중심의 사회에 속한다.

EAI CSR 브리핑

제1호 한국 CSR 인식과 경제체감지표 (2007년 1월)

제2호 [24개국 국제비교] 기업의 사회적 책임 (2007년 4월)

30대 기업의 CSR 평가결과와 브랜드 이미지 평가결과 비교 추이



자료 : EAI

정책정당을 만들어가는 민심

냉전의 시대가 그 막을 내리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3종의 변화가 일고 있다. 가치관이 세대별로 다양화하고 여론이 정치를 움직이며 이념이 정책을 결정하는 시민사회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시대를 이끄는 국민여론은 존중의 대상이다. 그러나 그 자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한국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해 주는 지혜가 항상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오히려 국민여론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정책현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 정보 없이 형성된 만큼 그 질적 수준이 부실할 수 있다. EAI는 국민여론을 조사할 때 그 다양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문가 여론조사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

정당정책 여론조사

EAI 시민정치패널은 2005년 11월 중앙선거위에 공식 제출된 각 정당의 정책을 토대로 한국리서치·중앙일보와 공동으로 정당과 그 지지자의 이념적 충돌성을 조사하였다.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이 얼마나 정강정책에 대한 선호도에 근거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정당정치의 불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이 유권자의 정책적 선호도와 상충되는 정강정책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유권자가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념적 충돌성 조사는 한국정당정치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가능할 수 있는 소중한 연구가 된다.

조사결과

- * 열린우리당 지지자의 54.6%, 한나라당 지지자의 66.6%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정책 가운데 특별히 기억나는 정책이 없다고 응답할 만큼 한국에서 정당은 여전히 정책정당의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
- * 정당들 간의 치열한 정치적 갈등과는 대조적으로 지지정당과 무관하게 유권자들 사이에는 조사대상 정책 중 절반에서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열린우리당의 경우 정당의 정강정책과 그 지지자의 생각이 가장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6개 정책 가운데 '당의 입장'과 '지지층의 생각'이 다른 정책들



선거패널여론조사

한국에서 선거여론조사는 매년 다른 응답자 표본을 조사해서 유권자의 태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일회성 조사로는 유권자의 태도가 얼마나 유동적이고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힐 수 없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서로 다른 시점에 실시된 일회성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변화의 추이를 가능하고 그 원인을 유추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를 잡기까지 하였다. EAI 여론분석센터는 더 이상 민심을 부정확한 유추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동일한 응답자 표본을 여러 시점에 반복해서 조사하는 패널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패널조사는 여러 조사시점 사이에 일어난 사건과 이슈가 어떻게 응답자의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세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06 지방선거 패널여론조사

EAI 여론분석센터는 한국의 첫 번째 패널여론조사로서 2006년 지방선거 기간인 4월 29일부터 6월 6일까지 서울·부산·광주·충남 지역에서 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와 함께 4회에 걸쳐 패널조사를 실시하였고 전국 차원에서도 2회에 걸쳐 패널조사를 실시하였다.

2007 대선 패널여론조사

EAI는 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한국 대통령선거연구 사상 처음으로 패널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성별·연령별·지역별 전국인구비례에 맞게 모집된 3,500명의 대규모 패널을 대상으로 2007년 4월부터 대선이 있는 12월까지 8개월에 걸쳐 총 6차례 반복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조사결과를 SBS와 중앙일보를 통해 소개된다.

패널여론조사를 통해 본 민심변화의 추이

- * 지역·세대·이념을 중심으로 삼아 선거경쟁의 틀을 구축해 온 기존의 선거정치가 그 기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 * 일회성 여론조사에 근거한 사회적 통설과 달리 유권자의 "이념"이 상당히 유동적이다. 정당에 대한 선호도 역시 상황변화에 대단히 민감하다.
- * 정부여당의 경제정책과 국정운영능력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의 지지정당을 결정하는 핵심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 * 후보 개인의 이미지와 덕목 및 자질이 표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여연구자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고려대
강원택 EAI 시민정치패널 위원장·숭실대
권혁용 고려대
김민진 경희대
김병국 EAI 원장·고려대
김성태 고려대
김장수 고려대 평화연구소
김춘석 한국리서치
박찬욱 서울대
서현진 성신여대
신창운 중앙일보
이상협 EAI 연구원
이현우 서강대
임성학 서울시립대
정원철 EAI 선임연구원
정한울 EAI 선임연구원
진영재 연세대
현경보 SBS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5.31 지방선거 패널조사의 결과는 단행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와 EARS Series 4 (5·31 지방선거와 유권자의 선택: 표 풀림의 원인과 그 정치적 의미)로 2007년에 발표되었다.

역사연구

역사를 모르고서는 사회과학이론을 개발할 수도 정책분석에 나설 수도 없다. 과거에 무지한 채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는 더욱 없다. 역사를 공부하는 역사학은 현재의 당리당락에 따라 과거를 해석하는 역사주의와는 엄연히 다르다. 역사학은 맥락에 충실하지만 역사주의는 당파성을 추구한다. EAI는 역사학의 관점에 서서 한국 정치경제의 근현대사를 시리즈로 편찬한다.

한국정치사 연구 박정희 시대

오늘날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명과 암은 다같이 박정희 시대에 그 기원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정희 시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오늘의 한국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과거를 연구하는 것은 현재를 이해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과제를 당리당락을 좇는 정당에 맡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EAI는 학자적 자세에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역사의 맥락에 충실하면서 박정희 시대를 연구해야 한다는 믿음 아래 1998년 당시 하버드대 아시아센터 소장이었던 Ezra Vogel 교수와 함께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박정희 시대에 대한 연구를 한국 교수들의 손으로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필자들은 대부분 국내 학자들로 충원되었다. 그러나 비교사적 관점에서 박정희 시대를 바라본다는 취지로 4명의 외국교수도 필진으로 동참하였고, 별도로 9명의 외국학자들로 국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권과 각 장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논평을 받았다. 국내학자 29명과 해외학자 13명으로 구성된 연구진이 1998년부터 연구한 결과는 2008년 2권의 영문 단행본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The Park Era : Formation and Consolidation Volume I , co-edited by Byung-Kook Kim, Ezra F. Vogel, and Chaibong Hahm

The Park Era : Tightening Volume II, co-edited by Byung-Kook Kim and Ezra F. Vogel

연구기간 1998년 1월~2008년 9월

주 관 EAI·하버드대 아시아센터

국제 학술회의 : 박정희 시대

The Park Chung Hee Era: Modernization

〈박정희 시대〉연구에 참여하는 국내외 필자 32명과 국제자문위원 9명은 2000년 8월 서울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1차 원고에 대한 심층적 토론을 벌였다.

The Developmental State Revisited : Political Regime, Industry Characteristics, Policy Networks and Leadership

〈박정희 시대〉집필진 중 김병국, Domínguez, Hutchcroft, Noble

교수 등은 미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 참여하여 남미·필리핀·대만 등 외국사례를 한국의 사례와 비교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The Rebirth of Modern Korea

〈박정희 시대〉집필진 중 장훈, 김은미, 김병국, 김주홍 교수 등은 미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 참여하여 박정희 시대의 주역인 공화당·재벌·관료·군부 등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인재대전략

정당이 이상을 꿈꾸고 관료가 그 실천에 나선다는 Max Weber식의 이분법적 분업체제는 민주화 · 세계화 · 정보화의 변환시대에 더 이상 설 땅이 없다. 이제는 정치 · 경제 · 행정 · 국제관계의 다양한 세계를 들락날락 하면서 스스로 이상과 실천의 문제를 서로 연결시켜 해결하는 혼혈이 순종을 제치고 정책의 중앙에 서야 한다. 정계 · 관계 · 재계 · 학계의 인재가 모여 국가대사를 함께 논하고 서로의 “피”를 수혈받는 싱크탱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EAI는 그러한 혼혈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인재대전략을 펼친다.

동아시아 지식사회의 허브를 꿈꾼다

변환의 시대에서 지식은 힘의 원천이다. 열강에 둘러싸인 한국이 번영을 누리고 평화를 구가하려면 그 힘의 원천을 장악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가 흐르는 길목에 서 있고 소통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자 목적지는 냉철한 안목과 뜨거운 열정으로 세상을 읽고 현실에 참여하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EAI Global Academy

교육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탐구를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진리탐구의 방식은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 EAI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한국의 대학교육을 바꾸고자 한다. 유학을 가지 않아도 세계적 석학의 아이디어를 직접 접할 수 있는 EAI Global Academy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쌍방향의 토론식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매년 4대1의 경쟁을 뚫고 선정되는 30명 가량의 정치학·국제관계학 전공학생이 그 대상이다.



1차 Global Academy 수료생



왼쪽부터 Rozman 서재정 Diamant 강연을 듣는 학생들

EAI Fellows Program

동아시아 지역학이 인문·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는 과정의 선봉에 서 온 것이 루스 재단이다. EAI는 루스 재단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2005년 12월부터 매년 5~6명의 EAI Fellow를 북미정치학계의 중진 교수와 석학 중에서 선발한다. EAI Fellow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발전과 민주화"라는 주제로 대중강연 및 전문가 세미나 시리즈를 서울·북경·상해·동경·타이페이에서 차례로 개최한다. 강연 시리즈는 네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 지역학과 사회과학이 서로 만나 역사적 경험에 근거하는 이론을 생산하고 그 이론 위에서 역사를 서술하는 학제간 연구의 학풍을 만들어낸다.
- * 북미정치학계를 이끄는 중진 교수와 석학의 방문 강연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젊은이가 첨단 사회과학이론을 배우고 역사학적 통찰력을 키우는 계기를 제 공함으로써 동아시아 정치학계의 차세대 리더를 양성한다.
- * 북미정치학계의 중진교수와 석학을 동아시아 지역의 학자 및 연구기관과 연결시킴으로써 북미정치학계 내의 동아시아 연구를 활성화한다.
- * 한 국가를 넘어서는 동아시아 지역학을 구축하기 위하여 비교 연구를 장려한다.

후원 Henry Luce Foundation



Kang

EAI Fellow 선정위원회

김병국 EAI 원장 · 고려대
Yun-han Chu Academia Sinica
Qingguo Jia Peking University
Dingli Shen Fudan University
Yoshihide Soeya Keio University
Stephan Haggard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2005 Fellows

Jeffrey Broadbent University of Minnesota
Neil Diamant Dixon College
Yufan Hao Colgate College
David Kang Dartmouth College
Gilbert Rozman Princeton University
Jae-Jung Suh Cornell University

2006 Fellows

Tun-jen Cheng College of William and Mary
Jacques E. C. Hymans Smith College
Victoria Tin-bor Hui University of Notre Dame
Peter J. Katzenstein Cornell University
T. J. Pempel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Elizabeth Anne Wishnick Montclair State University

2007 Fellows

Matthew M. Carlson University of Vermont
William W. Grimes Boston University
Soo Yeon Kim University of Maryland
Hong Yong Le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Jong-Sung You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Jianwei Wang University of Wisconsin-Stevens Point

차세대 리더를 육성한다

미래한국의 주인은 오늘의 청년이다. 국제적 안목을 갖추고 이론과 실천의 문제를 고민하는 청년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다. 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논리의 한계를 스스로 수정해 가는 젊은이가 없다면 앞날이 암울하기만 하다. 덕(德)과 지(智)를 갖추고 실천을 두려워하지 않는 차세대 리더의 육성에 나서야 한다.

인턴 프로그램

조정은 (EAI 인턴, 2005년)

"EAI 인턴이 되어 가장 즐거웠던 것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내·외 국제정치학 분야의 최고 교수님들과 전·현직 외교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 살아있는 지식을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소정 (EAI 인턴, 2006년)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내게 부족한 점을 채우고 싶다는 강한 동기부여도 받았다."

EAI는 2004년 8월부터 대학·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50여명의 우수한 젊은 인재가 학술·정책·포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더 넓은 시야와 더 깊은 안목을 갖추게 되었다. 인턴은 연구의 기획에서부터 전파에 이르는 전(全) 단계에서 힘을 보태주고 덜어주는 EAI의 큰 자산이다.

크라우스 국제인턴

UCSD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acific Studies는 2007년부터 매년 여름방학 동안 "크라우스 국제인턴"으로 선정된 석사과정 학생을 EAI에 파견한다. EAI는 크라우스 인턴을 차세대 지한파 전문가로 키우고자 한다.



인턴 명단

강경준 동국대
강범하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강은혜 연세대
강지수 숙명여대
곽소희 이화여대
구미경 성균관대
권혜연 포항공대
김규연 Qing Hua University
김동은 육사
김성은 아주대
김성은 고려대
김성희 연세대
김수진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소정 연세대
김은하 Georgetown University
김주는 University of Hawaii

김진 서울대
김진곤 연세대
노유연 이화여대
로빈정 연세대
민인영 연세대
박동욱 University of Toronto
박성은 서울대
박정훈 서강대
박하나 서울대
변혜진 연세대
송민정 Acadia University
송인근 서울대
송인영 Carnegie Mellon University
신동은 고려대
신지연 이화여대
신지현 Georgetown University
오현지 Emory University

윤경화 Columbia University
윤문연 서울대
윤상원 New York University
윤정원 연세대
이계성 Washington University
이고은 서울대
이경하 서울대
이기원 Johns Hopkins University
이상연 Waseda University
이승훈 고려대
이유리 고려대
이은미 연세대
이중구 서울대
임찬종 서울대
장재원 아주대
전계현 Carleton College
전정화 이화여대

정다정 이화여대
정애리나 서울대
정주혜 Cincinnati University
조승연 이화여대
조윤경 서울대
조정은 Peking University
조호경 연세대
최정욱 서울대
최지윤 Brandeis College
최형진 Wesleyan College
허경주 서울대
허윤선 서울대
황성준 서울대
홍세종 Wesleyan College
Lisa Collins 고려대
Matthew Lauer 고려대
Michael Price UC, San Diego

교육의 세계화

취향과 능력에 따라 다양해지는 교육수요는 이미 과거의 단일한 원칙만으로 해소하기에는 너무 복잡적이고 분화되고 있다. 한국교육은 교육수요의 다양화에 적극 반응해야 할 뿐 아니라 보다 세분화되고 다층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EAI는 국내·외 교육환경변화의 트렌드를 진단하고 글로벌 학습이동의 시대에 부응하는 대응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중앙일보의 후원 아래 교육학·사회학·정치학·영어교육·아동가정학·여론분석 등 다양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국가인적자원패널을 구성하고 학제간 연구를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참여 연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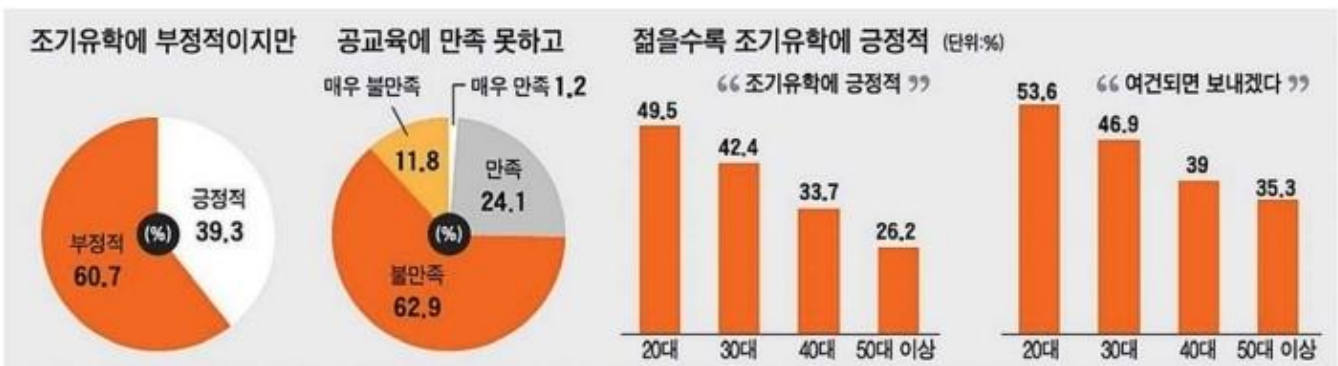
임천순 EAI 국가인적자원패널 위원장 · 세종대
 김병국 EAI 원장 · 고려대
 서소정 경희대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 고려대
 이병민 서울대
 이상협 EAI 연구원
 정일준 고려대
 정한울 EAI 선임연구원
 하연섭 연세대

조사결과

- * 교육은 한국에서 이미 최대의 정치적 현안이다.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의 교육정책을 얼마나 고려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겠다"가 24.8%, "중요하게 고려하겠다"가 전체 응답의 58.4%에 이른다.
- * 조기유학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주된 원인은 젊은층과 화이트칼라 전문직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외국대학 진학이 새로운 성공공식의 한 요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 * 미래 학부모 계층으로 대거 유입될 20대 사이에서 해외유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가장 높다는 점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조기유학이 증가할 것임을 암시한다.
- *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조기유학에 긍정적인 비율이 35.9% 수준에 이르고 있다.
- * 다양해진 교육수요와 기호를 하나의 단일짓대로 재단할 수 없다.



임천순



자료 : 중앙일보 2007년 10월 8일

강연회

국가대전략 강연회

세계화·정보화·민주화 시대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한다는 비전 아래 출범한 EAI에서 축적해 놓은 안보대전략·민주대전략 지식을 모아 사회에 전파하는 것이 EAI 출범 5주년을 맞아 열린 "국가대전략 강연회"이다. 국가대전략 강연회는 매년 1회 개최된다.

주최 EAI·중앙일보

주관 한국리서치



연사 및 주제

- 하영선 글로벌 변환경쟁과 한국의 생존변영전략 :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 임천순 국가 인적자원 이동의 시대, 한국의 교육전략
- 김병국 지식사회로 가는 길 : 순종에서 혼혈로
- 이재열 선진사회의 인프라 : 사회적 신뢰기반 구축전략
- 이내영 한국사회 이념의 진로, 진보의 시대는 끝나는가?
- 장 훈 경제를 살리는 한국정치의 새 구상
- 강원택 한국정치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치개혁 과제

도라산 평화·인권 강연회

평화통일은 한민족의 염원이자 세계평화의 서곡이다. EAI는 평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고 남북 공존과 화해의 새로운 길에 대한 모색의 절박함을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하여 경의선의 남측 최북단 역인 도라산에서 "도라산 강연회"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한다. 그 시작은 아일랜드의 첫 여성대통령이자 UN인권고등판무관으로서 평화의 정신을 설파하고 인권운동의 선봉에 서 온 메리 로빈슨 여사의 평화와 인간안보에 대한 강연이었다.

일시 2005년 7월 27일

주최 동아시아연구원·경기문화재단·

Club de Madr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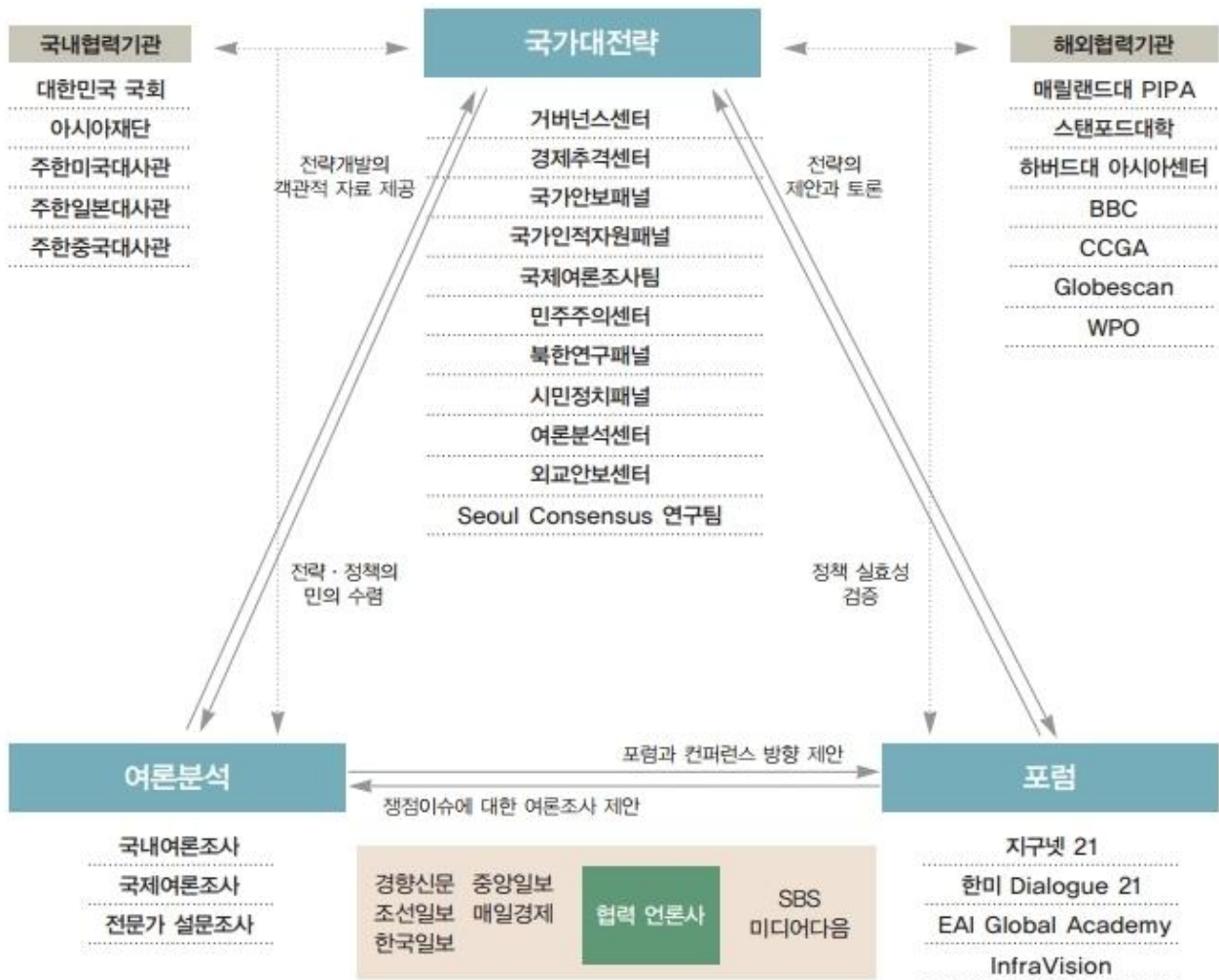


메리 로빈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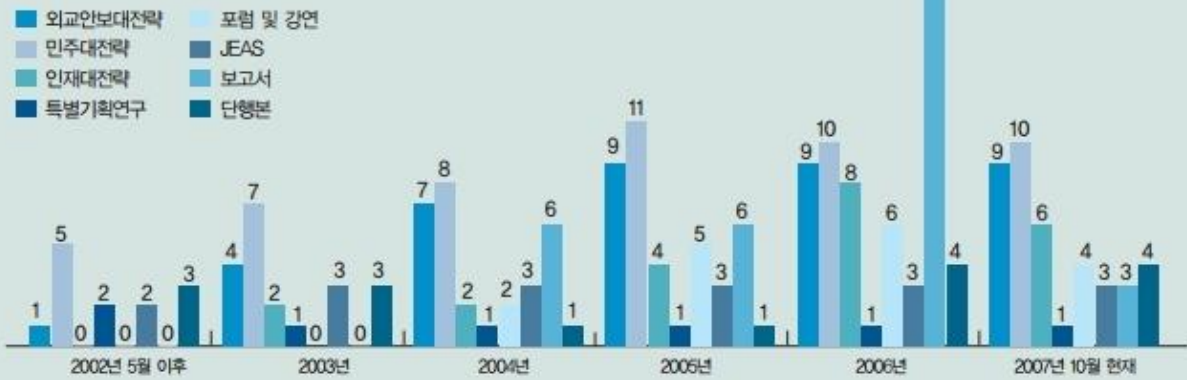
전문가를 키운다

EAI는 일단 연구주제가 결정되면 그 전문가를 전국적으로 찾아나서 최상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정책적 과제를 다루는 태스크포스에 학자를 참여시켜 이론과 현실감각을 겸비한 실천적 선비를 미래한국의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이다. 태스크포스는 학술과 정책의 세계에 두 발을 딛고 있는 선비형의 전문가를 키우는 배움의 한 터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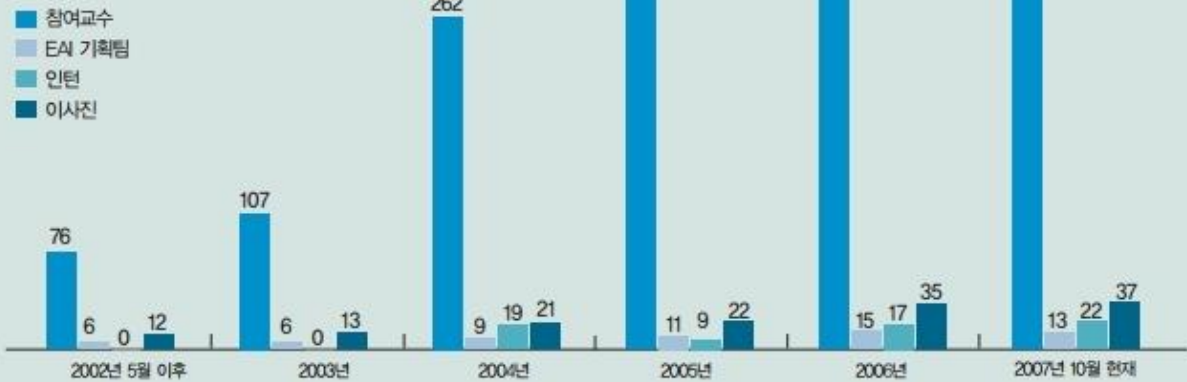


EAI가 걸어온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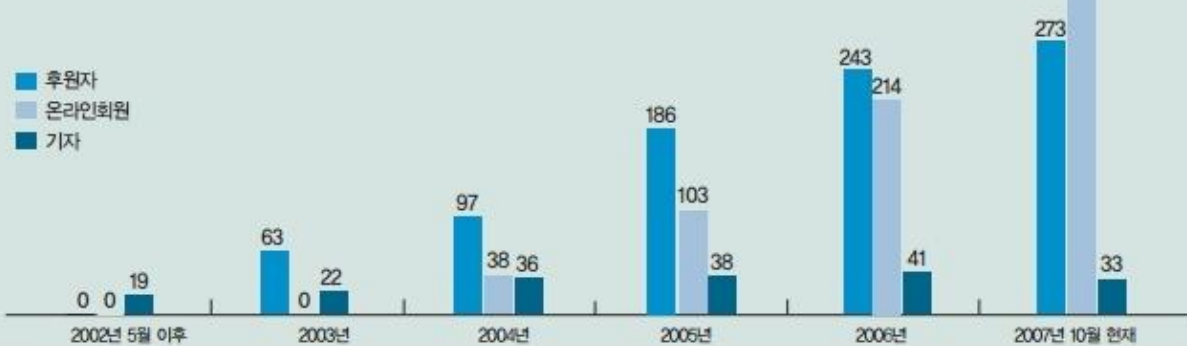
EAI가 일구어 낸 성과물



EAI를 이끌어가는 분들



EAI를 지원해주는 분들





국가대전략의 전파

생산자는 소비자를 위해서 존재한다. ESI는 정확한 정보를 사회에 알리고 올바른 가치관과 정책시각을 세우고자 다양한 형태의 국가대전략 전파전략을 구사한다.

포럼

아이디어는 자신을 낳아준 생산자가 아니라 자신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그 주인이다. EAI는 자신의 정책적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사회에 전파하기 위하여 정계·관계·군·재계·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벨 주한미군사령관, 하영선 EAI 이사

한미 Dialogue 21

EAI는 대한민국 국회가 새로운 외교채널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미 Dialogue 21을 발족시켰다. 한미 Dialogue 21에서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주한미대사관·주한미군·주한미상공회의소의 고위 인사들과 만나 국제적 이슈와 한미간 외교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2004년에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그 첫 회의를 가진 한미 Dialogue 21은 매년 2~3번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경원 한승주 나경원 윤건영 김부겸 남경필
이홍구 권영길 심상정 박진 원희룡 박형준

한미 Dialogue 21 연사

4차 회의 2005년 5월 31일
William W. Grimes, Boston University
주제 미·일 경제관계

5차 회의 2005년 9월 8일
Stephan Haggard, UC, San Diego
주제 북한의 기아와 인권

6차 회의 2006년 1월 26일
전재성 서울대
주제 한미관계의 현황과 미래

7차 회의 2006년 8월 28일
하영선 EAI 이사·서울대
주제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8차 회의 2007년 1월 10일
Burwell B. Bell 주한미군사령관
주제 북한의 도전과 한미관계

9차 회의 2007년 5월 21일
Alexander Vershbow 주한미국대사
주제 한국과 미국: 동맹의 확장





왼쪽부터 버쉬바우 주한미대사와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한미 Dialogue 21 참여인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김재원
 김부겸 나경원
 김종률 남경필
 김영춘 박진
 김형주 박형준
 송영길 원희룡
 안영근 윤건영
 유재건 이병석
 이상경 전여옥
 이인영 정문헌
 이은영 정병국
 정봉주 진영
 정청래 황진화
 조정식 민주노동당
 최성 권영길
 최재천 노회찬
 채수찬 심상정
 한나라당 고진화
 공성진 이낙연
 권영세 이승희

EAI

김경원 EAI 이사·전 주미대사
 김병국 EAI 원장·고려대
 김성한 고려대
 김태현 EAI 외교안보센터 소장·중앙대
 박철희 서울대
 손열 연세대
 신성호 서울대
 이근 EAI 경제추격센터 소장·서울대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고려대
 이해정 중앙대
 이홍구 EAI 이사장·전 국무총리
 임현진 EAI 이사·서울대
 장훈 EAI 거버넌스센터 소장·중앙대
 전재성 서울대
 하영선 EAI 이사·서울대
 한승주 EAI 이사·전 주미대사

미국측

주한미대사관
 Carmine D Aloisio 상무참사관
 Charles A. Atkinson 정무담당관
 Phillip Broussard 공보과 부대변인
 Grace H. Choi 정치군사담당관
 Shawn H. Duncan 정치군사담당관
 John Fogarasi 상무참사관
 Henry R. Haggard 정무담당관
 Lloyd S. Harbert 농무참사관
 Autumn Han 정치담당관
 Darrell A. Jenks 문정관
 Dae B. Kim 부문장관
 Yuri Kim 정무담당관
 Michael Kleine 정치담당관
 Joanne M. Martin 문정관
 Kip A. McCormick 국방무관
 Robert Ogburn 공보대리공사
 Michael Richards 부공보참사관
 William Staton 공관차석
 Kurt Tong 경제참사관
 Alexander Vershbow 대사

Don Q. Washington 공보참사관
 James Wayman 정무담당관
 Jessica A. Wolf 정치군사담당관
 Joseph Y. Yun 정무참사관
 변정완 전문위원
 김남이 전문위원
 이지윤 전문위원

주한미군

Burwell B. Bell 주한미군사령관
 Franklin F. Childress 대령
 Thomas P. Kane 대령
 Kip A. McCormick 대령
 Kurt McPherson 대령
 Wayne Perry 대령
 Stephen Sargeant 소장
 Duane D. Thiessen 중장

주한미상공회의소

Wayne Chumley 회장
 Christopher S. Cooper 부회장
 Tami Overby 부회장



EAI 지구넷 21

EAI는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모색하자는 뜻에서 2004년 10월 전문가 모임인 EAI 지구넷 21을 공식적으로 발족시켰다. EAI 지구넷 21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전문가적 컨센서스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 정파적이고 범 이념적으로 회원을 구성하였다. EAI 지구넷 21은 외교안보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광범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전·현직 고위 외교안보 정책결정자들을 초빙하여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닝쿠파이 중국대사

EAI 지구넷 21 회원

학자

하영선 회장 · EAI 이사 · 서울대

강봉구 한양대	김일영 성균관대
강규형 명지대	김재철 가톨릭대
강원택 숭실대	김창수 KIDA
김 균 고려대	김태현 중앙대
김기정 연세대	김현진 SERI
김명섭 연세대	김형국 숙명여대
김병국 고려대	김홍규 외안연
김선현 고려대	남궁곤 이화여대
김성한 고려대	남궁영 한국외대
김영호 성신여대	남성욱 고려대
김영호 국방대	류길재 경남대
김용직 성신여대	마상윤 가톨릭대
김우상 연세대	모종린 연세대
김은기 고려대	박길성 고려대
김은미 이화여대	박명림 연세대
김의영 경희대	박영준 국방대
	박인휘 이화여대

박종철 통일연구원
박찬옥 서울대
박철희 서울대
서병훈 숭실대
손 열 연세대
신범식 인천대
신성호 서울대
신옥희 서울대
오경택 전남대
우승지 경희대
유호열 고려대
윤영철 연세대
이 근 서울대
이근욱 서강대
이내영 고려대
이동률 동덕여대
이동휘 외안연

이민룡 육사
이상현 세종연
이숙종 성균관대
이신화 고려대
이시영 중앙대
이연호 연세대
이옥연 서울대
이원덕 국민대
이재열 서울대
이정훈 연세대
이철호 부산대
이호철 인천대
이홍섭 국방대
이태환 세종연
임원혁 KDI
장 훈 중앙대
전상인 서울대

전재성 서울대
전주성 이화여대
전진호 광운대
정용화 연세대
정종섭 서울대
정진영 경희대
차두현 KIDA
최 강 외안연
최대석 이화여대
최아진 연세대
최영종 가톨릭대
최은봉 이화여대
최진우 한양대
하영선 서울대
한석희 연세대
한용섭 국방대
한태준 중앙대

현인택 고려대
홍규덕 숙명여대
홍성걸 국민대
황지환 서울대
황진환 육사
언론인
강경희 조선일보
강인선 조선일보
김상엽 SBS
박두식 조선일보
오대영 중앙일보
오영환 중앙일보
최 훈 중앙일보
최명길 MBC
하태원 동아일보



EA이 지구넷 21 연사

6차 회의 2005년 9월 12일

Stephan Haggard, UC, San Diego
주제 북한의 식량난과 인권

7차 회의 2006년 1월 16일

닝쿠푸이(寧賦槐) 주한중국대사
주제 21세기 중국의 외교정책

8차 회의 2006년 2월 13일

Robert Einhorn CSIS Senior Advisor
주제 미국의 대북정책

9차 회의 2006년 6월 29일

오시마 쇼타로(大島正太郎) 주한일본대사
주제 동북아시아의 과제와 한일협력

10차 회의 2007년 1월 19일

김성한 고려대
손 열 연세대
신범식 인천대
이상현 세종연구소
이태환 세종연구소
전재성 서울대
주제 지구적 변형시대의 동아시아

11차 회의 2007년 6월 19일

Alexander Vershbow 주한미국대사
주제 북한과 6자회담의 미래

앨런 브링클리 강연회 2007년 10월 25일

Alan Brinkley 콜롬비아대학 부총장
주제 2008 미국 대통령 선거 전망



버쉬바우 미국대사 쇼타로 일본대사
강인선 김용호 Robert Einhorn
차두현 손 열 이태환



InfraVision 포럼

참여 연구자

김병국 EAI 원장 · 고려대
 김영호 국방대
 김태현 중앙대
 박철희 서울대
 백혜영 EAI 선임연구원
 신성호 서울대
 장 훈 중앙대
 전재성 서울대
 정진영 경희대
 하영선 EAI 이사 · 서울대

EAI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치적 리더에게 EAI의 국가대전략을 설명하는 것이 미래한국의 지적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InfraVision 포럼을 발족시켰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2006년에는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을 한 명씩 초청하여 EAI가 2004년부터 연구해온 "한미동맹의 비전과 한국의 변환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제1차 회의

일 시 2006년 9월 18일
 초청인사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제2차 회의

일 시 2006년 10월 24일
 초청인사 고건 전 국무총리

제3차 회의

일 시 2006년 10월 30일
 초청인사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제4차 회의

일 시 2007년 3월 22일
 초청인사 열린우리당 미래포럼 강기정 · 안민석 · 서혜석 · 이상경 의원

왼쪽부터 고건 손학규 박근혜



언론

EAI는 정책개발에 나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언론을 동반자로 삼는다. 출범 초기 중앙일간지에 제한되었던 협력관계가 이제는 방송사와 인터넷 매체까지 두루 포괄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에 주재하는 외신기자에게도 EAI 정책보고서가 정기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EAI가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싱크탱크가 되려면 EAI가 생산해내는 아이디어가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2007

[2007 대선패널 여론조사]

SBS 이명박후보 독주 계속... BBK 수사결과가 변수 2007.10.21.
 중앙일보 노 대통령 지지자들 33.7% 이명박 > 25.9% 정동영
 SBS 이명박·박근혜 누가 되든 절반은 한나라 외면 2007.08.16
 중앙일보 4개월 사이 41%가 지지 후보 바꿨다 2007.08.16
 SBS 범여권, 쉽지 않은 반한나라당 연합 2007.05.03
 중앙일보 2007 대선 3대 속살 안 통할 수 있다 2007.05.03
 [외신 인터뷰]

2007 대선 여론 New York Times South Korea's President Sags in Opinion Polls 2006.11.27

[교육·조기유학조사]

중앙일보 2030세대 학부모 되면 조기유학 더 늘다 2007.10.08
 중앙일보 영어 배울 수 있으면 세계 어디라도 간다 2007.10.08
 [EAI·중앙일보 파워기관 신뢰영향력조사]
 중앙일보 매년 낮아지는 신뢰도 2007.07.03
 중앙일보 "진보의 위기" 확인... 3년 연속 하락세 2007.07.03

[BBC·EAI·매경 국제현안조사 2007]

뉴스워크 한국판 친한 정책이 동북공정의 압초 만났다 2007.04.21

매일경제 한국 젊은층 급격히 보수화됐다 2007.01.23

[글로벌스캔·EAI·매경 기업의 사회적 책임조사 2007]

매일경제 롯데·주태공사, 규모 비해 사회적 책임 미흡 2007.01.19

[EAI·매경 경제·경영학자 패널조사 3]

매일경제 부동산 실패에서 보듯 비시장적 정책 성공못해 2007.01.01

매일경제 제발 정부 간섭 줄이고 시장에 맡겨라 2007.01.01

매일경제 경제경영학자 말.말.말... 모수보다 정공법 택했으면 2007.01.01

[국가안보패널]

조선일보 한미 굳건한 연합태세 보여줘야 전면전 막을 수 있다 2007.01.04

조선일보 북 비대칭 전력 위협 2007.01.04

조선일보 남북 전면전 가정하면 2007.01.04

조선일보 북, 제재 국면 전환 노력 국지 도발할 가능성 2007.01.04

조선일보 한국 어떻게 해야하나... 한미동맹 확고히...대공 방어능력 길러야 2007.01.03

조선일보 "북핵 불용원칙 분명하...포기 안할때 대가 치르게 해야" 2007.01.03

조선일보 미·중 "핵보유국 인정 못한다" 못박아 2007.01.03

조선일보 북, 핵폐기협상 질질 끌며 핵보유국 인정 노릴수도 2007.01.03

조선일보 북통과때 법적문제: 한국, 국제법상 북통치권 자동 확보 못해 2007.01.02

조선일보 급변동합계획 등 공론화 안거쳐 구채성 없어 2007.01.02

조선일보 독일 통일론 서독과 미국의 합작품이었다 2007.01.02

조선일보 북통과때 일부론 개입보다 자치적 질서 유도 바람직 2007.01.02

조선일보 북한 5대난은 2007.01.02

조선일보 북한 붕괴 2007.01.02

조선일보 북, 핵고수하면 '제2 고난행군' 못버리고 무너질수도 2007.01.02

조선일보 미국과 동맹 굳히고 북한 민심을 얻어라 2007.01.01

조선일보 이해관계 상충하는 미·중 2007.01.01

조선일보 한국, 북한 정권교체때 미·일·중과 개혁·개방 도와야 2007.01.01

조선일보 북한의 정권교체 3가지 시나리오 2007.01.01

조선일보 다음 권력은 군부에서? 2007.01.01

조선일보 미·중 타협속 핵·감정일없는 새 정권 등장 가능성 2007.01.01

[중미관계연구팀2]

조선일보 중국의 "시한폭탄", 빈부격차와 실업 2007.04.14

문화일보 중국, 질주하는 '폭탄' 일수도... 2007.04.13

연합뉴스 中 위협, 기회론 넘어 리스크론 주목 2007.04.06

[EAI 시민사회 데이터뱅크 구축2]

중앙일보 평일 종로 불법사위 사회적비용 683억원 2007.02.12

한국경제 성장을 꺾는 법질서 부재 2007.01.09

한국경제 한국, 법·질서 안 지켜 성장률 매년 1%p 꺾어져 2007.01.09

서울경제 지난 10년간 일자리 수십만개 날아가 2007.01.09

2006

[EAI·매경 경제·경영학자 패널조사 3]

매일경제 올해 경제성장...부동산정책 F 일자리창출 D 2006.12.30

[EAI·한국일보 정치안보의식조사]

한국일보 [사설 12월 19일] 정권 실패 알려 주는 "진보층"의 퇴조 2006.12.19

한국일보 대북 의식, "인도적 지원에 그쳐야" 44~67% 2006.12.18

한국일보 안보체감도, 20대에서 70%로 되레 민감 2006.12.18

한국일보 한국사회 이념지형의 변화, 20대서 진보이탈 가장 많아 2006.12.18

한국일보 차기 대통령 능력 63.5% 경제 대통령 원해 2006.12.11

[중앙일보·EAI 통아태 7국 국제인식조사]

중앙일보 한국의 위상과 책무 2006.12.13

[EAI 외교안보 및 경제전문가 한미관계 여론조사]

미디어다음 미국은 FTA 협상총력, 정치권은 안보 논란에만 올인?

2006.09.13

미디어다음 전시작전통제권,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견해차 팽팽 2006.09.13

[EAI·매경 경제·경영학자 패널조사2]

매일경제 정책은 신뢰를 먹고산다 2006.09.12

매일경제 "FTA 협상시한 엄매일 필요없다" 2006.09.04

매일경제 성공한 나라치고 개방안한 곳 없어 2006.09.04

매일경제 FTA효과 극대화, 노동시장 개혁이 최우선 과제 2006.09.04

매일경제 한·미 FTA영향, 서비스 경쟁력 크게 높아질것 2006.09.04

매일경제 "과도한 知財權 보호 요구 거절" 2006.09.04

매일경제 정부 FTA 대응·추진 전략 "C-" 학점 2006.09.04

[EAI·중앙일보 파리기만 신뢰영향력조사2]

중앙일보 힘센 검찰, 국제정 - 믿음은 낮은 점수 2006.08.15

중앙일보 청와대 영향력 중위권, 신뢰도는 하위 2006.08.15

중앙일보 대기업 2년 연속 최상위 노동·시민단체 뒷걸음질 2006.08.15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공동 지방선거패널조사]

중앙일보 지방선거 한달 43% 대선 지지후보 변경 2006.06.10

SBS 8시뉴스 전국패널조사_지방선거, 무능한 정부... 2006.06.07

중앙일보 서울, 현 정부 중간평가로 인식 2006.05.30

중앙일보 여당 지지층 이탈 커 2006.05.23

[BBC·EAI·매경·한국리서치 기업의 사회적책임 국제여론조사 2006]

매일경제 사회적 책임 다하는 경영해야 글로벌 기업 2006.05.09

매일경제 기업 사회적 책임, 잘한다 못한다 모두 삼성이 1위 2006.05.09

[EAI·중앙일보 정당정책-지지자 충돌성 조사]

중앙일보 대부분 한·미 FTA 찬성 2006.05.06

중앙일보 여당, 당론 - 지지자 생각 가장 달라 2006.05.06

[BBC·EAI·매경·한국리서치 국제여론조사 2006]

매일경제 중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 한국 최고 2006.02.03

매일경제 중국 너무 컸다, 일본 지지 늘어나 2006.02.03

매일경제 한국 체감경기 양극화 심해졌다 2006.01.24

매일경제 32개국 여론조사 "체감 살림살이 좋아졌어요" 2006.01.24

[EAI·매경 경제·경영학자 패널조사]

매일경제 지식과 혁신이 우리경제 활로 2006.01.02

매일경제 [출발 2006] "미래 불확실...투자·소비 모두 꺼린다" 2006.01.02

매일경제 [출발 2006] 21세기판 "親中聯美" 전략 세우자 2006.01.02

매일경제 [출발 2006] "서비스시장 개방은 필수" 10명 중 9명 2006.01.02

[국가안보패널]

조선일보 북 핵실험 이후 한반도 - ⑦ 중국은 그럼 2006.10.16

조선일보 북 핵실험 이후 한반도 - ⑥ 한미동맹과 국방 2006.10.16

조선일보 북 핵실험 이후 한반도 - ⑤ 남북관계 2006.10.16
 조선일보 북 핵실험 이후 한반도 - ④ 국내 정치변수 2006.10.16
 조선일보 한반도 평화의 길 - ⑥ 남북 경협 2006.06.28
 조선일보 한반도 평화의 길 - ⑤ 북한 인권 2006.06.28
 조선일보 한반도 평화의 길 - ④ 평화체제 2006.06.28
 조선일보 한반도 평화의 길 - ③ 미북수교 2006.06.28
 조선일보 한반도 평화의 길 - ② 강압외교 2006.06.28
[한미동맹로드맵]
 매일경제 실용주의 눈으로 보는 韓·美동맹 2006.11.11
 조선일보 신간 한줄읽기 :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2006.11.04
 연합뉴스 <신간>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2006.10.31

[북한연구패널]
 경향신문 '돈줄 봉쇄' 北변화 불러올 수 있을까 2006.07.25
[중미관계연구팀1]
 중앙일보 [JERIReport] 연대별로 예측한 중국 경제 2006.05.19
[EAI 지구넷21]
 중앙일보 북한 핵 문제 해결하려면 한국?중국이 채찍 들어야 2006.02.16
 중앙일보 EAI 지구넷21-닝푸쿠이 중국 대사 토론회 2006.01.18
[EAI 시민사회 데이터뱅크 구축1]
 문화일보 때쓰기식 불법시위가 더 악랄 먹히는 사회 2006.06.29
 중앙일보 시위 문화 바꾸려면 2006.06.29 429
 중앙일보 때쓰기식 불법 시위 악발은 더 잘 먹혔다 2006.06.29

2005

[EAI · 중앙일보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여론조사]
 조선일보 [서평] 민주화는 더 강한 민족주의를 낳는다 2007.01.20
 중앙일보 배타적 대외인식 2005.10.14
 중앙일보 위축되는 중산층 의식 2005.10.14
 중앙일보 [한국인 그들은 누구인가] "대한민국 민족주의" 뜯다 2005.10.13
 중앙일보 진보-보수보다 빈부 갈등이 더 심각 2005.10.13
 중앙일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다 71% 2005.10.13
[EAI · 중앙일보 공통 한국권력구조재편 여론조사]
 중앙일보 연정, 찬 39% 반 49% 개헌, 찬 41% 반 57% 2005.07.21
[EAI 주한외국기업인 투자여향 조사]
 중앙일보 미국의 대북 압박 단계별 외국기업 투자심리는 2005.06.01
 중앙일보 미군 감축보다 대북 군사제재 더 민감 2005.06.01
[EAI · 중앙일보 파워기관 신뢰영향력조사]
 중앙일보 대기업이 최상위권 정당·노총은 하위권 2005.05.25
 중앙일보 현재 대법원 동도 상위권 2005.05.25
 중앙일보 청와대 검찰 힘에 비해 신뢰도 크게 낮아 2005.05.25
[BBC · EAI · 매경 국제현안 여론조사 2005]
 매일경제 日 유엔 상임이사국 안된다 2005.03.21
 매일경제 한국인 경제비판 세계 최고 2005.01.26
 매일경제 중국인 "희색", 초고속성장에 자신감 2005.01.26
 매일경제 "부시대선으로 對美감정 악화" 42% 2005.01.21
 매일경제 한국 反美감정 美·中보다 낮았다 2005.01.21
 매일경제 한국 "테러 불감증" 여전 2005.01.21
[글로벌스캔 · EAI · 매경 기업의 사회적책임 국제여론조사 2005]
 매일경제 한국인 대기업 호감도 美·英 선진국보다 높다 2005.02.22
 매일경제 한국, 책임경영 잠재적 압력 높아 2005.02.22
 매일경제 [CSR] 중국은 기업윤리보다 품질에 관심 2005.02.22
[EAI · 한국일보 공통 정치사회적의식조사]
 한국일보 국민 52% "분배보다 성장우선" 2005.01.27
[EAI · 한국일보 공통 사회신뢰 여론조사]
 한국일보 정부기관보다 민간단체 더 신뢰 2005.01.28
 한국일보 "가족·친척·동창" 혈연·학연 연구주의 여전 2005.01.28
 한국일보 "경제 낙관" 응답자 국가신뢰도 높아 2005.01.28
[국가안보패널]
 중앙일보 "중국의 대외 전략" 2005.04.22

중앙일보 남북한 정상회담 한미 공조없인 위험 2005.01.25 184
[EAI 지구넷21]
 중앙일보 "북한 가아 보고서" 만든 해거트 박사 2005.09.09
 서울신문 美, 94년 北 주요 군사시설 공격 검토 2005.04.01
 국민일보 북핵 4~5년 더 끌면 세계적 위기 올 수도 2005.04.01
 중앙일보 전 미 북핵대사, 북핵 문제 비판 2005.04.01
 동아일보 갈루치 "한국 동북아 균형자역 이해할 수 없는 개념" 2005.04.01
 중앙일보 지구넷 21-부시 2기의 WMD 정책 토론회 2005.01.27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 민주주의 새구성]
 중앙일보 전문경영인 활용해야 프로 정부 2005.08.17
 중앙일보 FTA 피해 보상은 2005.08.17
 중앙일보 시민단체 역할은 2005.08.17
 중앙일보 전문경영인 활용해야 "프로 정부" 2005.08.17
 중앙일보 FTA 피해 보상은 2005.08.17
 중앙일보 [선진 경제로 가는 길] 下 시민단체 역할은 2005.08.17
 중앙일보 [선진 경제로 가는 길] 선진 경제 진입 시간이 없다 2005.08.15
 중앙일보 일자리·소득증진·분배 연계한 복지로 2005.08.15
 중앙일보 10년간 5.2%씩 성장해야 선진국 문턱 2005.08.15
 중앙일보 기업은 경쟁력 스스로 연마 정부는 시장 살리는 정책을 2005.08.15
 중앙일보 정부·국회가 성장 치어리더로 나서야 2005.08.15
 중앙일보 반기업 정서가 투자 걸림돌, 경제주체를 기부터 살리자 2005.08.15
 중앙일보 [선진 경제로 가는 길] 선진 경제 진입 시간이 없다 2005.08.15
 중앙일보 [선진 경제로 가는 길] 上, 반기업 정서가 투자 걸림돌 경제주체를 기부터 살리자 2005.08.15
[CCFR · EAI 대외인식 국제학술회의]
 한국일보 美 첩 교수 - EAI 이대영 소장 대담 2005.08.23
 한국일보 [中위협론] 한국인의 美·中 인식 2005.08.23
 중앙일보 로버트 사피로 교수 인터뷰 2005.08.22
[도라산 강연회]
 SBS 한수진의 선데이 클락-메리 로빈슨 편 2005.08.01
 중앙일보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인터뷰 2005.07.29
 문화일보 국가안보 넘어 인간안보 철설 2005.07.28
 연합뉴스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인권강연 2005.07.28
 조선일보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도라산역에서 특별 강연 2005.07.28

출판

책 안에는 한 시대의 고민이 깊숙이 배어 있고 한 세대의 지식과 지혜가 넓게 깔려 있다. EAI가 책을 출판하는 까닭은 바로 EAI가 생산해내는 아이디어를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게 전해주기 위해서이다. 그래야 미래세대가 책 안에 담긴 아이디어를 자신의 전통으로 받아들이고 그 토대 위에서 한 차원 더 높은 지식과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다. EAI는 책을 통해 새로운 전통을 구축하고자 한다.

영문저널 JEAS

동아시아 연구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차원에서 여러 국가를 사례로 삼아 사회과학적 명제를 끌어내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로까지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단지 중국을 연구하는 중국학이 있고 한국을 공부하는 한국학이 있고 일본을 이해하려는 일본학이 있을 뿐이다. 한 국가를 넘어서는 거대한 지역을 연구단위로 삼아 특수성과 보편성의 역사발전 원리를 다 같이 훑어보는 중남미 지역학이나 유럽 지역학과 달리 우물 안의 개구리 식으로 하나의 국

가 사례에만 함몰되어 있는 것이다. EAI는 동아시아 연구를 국가라는 소단위를 넘어서는 진정한 지역학으로 키운다는 비전 아래 영문저널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JEAS)를 매년 3회 간행하고 있다. EAI는 JEAS를 글로벌 기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취지 아래 세계적 학술지인 *World Politics*를 벤치마킹하고 그에 따라 조직과 운영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국·일본·대만·미국·호주의 대표적인 정치학자 6인이 주간과 부주간을 맡고 34인의 세계적 학자가 국제편집위원회를 구성하

며 1인의 중견학자가 서평섹션을 운영하고 있다. 출판사는 미국 소재의 Lynne Rienner Publishers이고 저널의 운영 전체를 책임지는 운영주관은 EAI의 김하정 선임연구원이다. JEAS는 2007년 10월 현재 제7권 3호를 출판한 상태이며 2007년 12월에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등재 일반 학술지로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JEAS는 2006년 12월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심사를 통해 국제학술지 발행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2012년까지 전체 예산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Haggard 김병국 Tiberghien Lu 김하정 Soeya MacIntyre





"Bound to become a premier journal." *Jang Jip Choi, Korea University*

"Brings new political relevance to theoretically informed social science analysis, pouring new wine into old bottles." *Lowell Dittmer, UC, Berkeley*

"Well-conceived, well-designed, and well-timed for accommodating empirically rich, theoretically rigorous, and policy relevant articles on East Asian affairs." *Samuel S. Kim, Columbia University*

"Has almost immediately become a venue of choice for publication by eminent scholars from both East and West. The articles are interpretive, and they face major questions...very high quality thinking about East Asia." *Lynn T. White III, Princeton University*

"Attentive to important, informed, and diverse Asian perspectives." *Edward Freidman,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JEAS 편집진

주간

Stephan Haggard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Andrew MacIntyr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Yoshihide Soeya

Keio University

부주간

Yun-han Chu Academia Sinica
Byung-Kook Kim Korea University
Xiaobo Lu Columbia University

서평주간

Yves Tiberghie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운영주간

Ha-jeong Kim East Asia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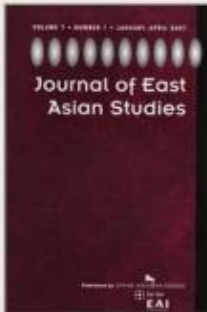
국제편집위원회

Muthiah Alagappa East-West Center
Gordon de Brouwer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Steve Chan University of Colorado
Beng Huat Chua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Larry Diamond Hoover Institute
Emmanuel de Dio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Jorge I. Domínguez Harvard University
Peter Evan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ung-Joo Han Korea University
Szu-yin Ho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Paul D. Hutchcroft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Takashi Inoguchi University of Tokyo
Qingguo Jia Peking University
K. S. Jomo University of Malaysia
Ryosei Kokubun Keio University
Shin-wha Lee Korea University
Hyun-Chin Lim Seoul National University

Linda Lim University of Michigan
Jongryn Mo Yonsei University
Andrew J. Nathan Columbia University
Gregory W. Noble University of Tokyo
John S. Odell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T. J. Pempel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Denny Roy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Gilbert Rozman Princeton University
Miranda A. Schreurs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Dingli Shen Fudan University
Jin-Young Suh Korea University
Akihiko Tanaka University of Tokyo
James T. H. Tang University of Hong Kong
Ezra F. Vogel Harvard University
Yizhou Wang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Meredith Woo-Cumings University of Michigan
Yu-shan Wu Academia Sinica

단행본과 정기 간행물

정기간행물



JEAS

동아시아 연구를 국가라는 단위를 넘어서는 진정한 지역학으로 키운다는 비전 아래 매년 3회 간행되고 있는 영문저널



NSP Report

매달 주요 외교안보현안을 선정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시리즈 형태로 발간하는 정책제안서



EARS

전문가와 일반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발간하는 여론조사보고서



Issues and Perspective

북한 내부의 체제 문제와 개혁·개방의 흐름을 분석하는 대북한 정책보고서

단행본

* EAI 외교안보대전략시리즈

21세기 한국외교의 대전략 : 그물망 국가 건설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2020 중국 리스크 : 중국경제 중장기예측과 리스크분석

* EAI 민주대전략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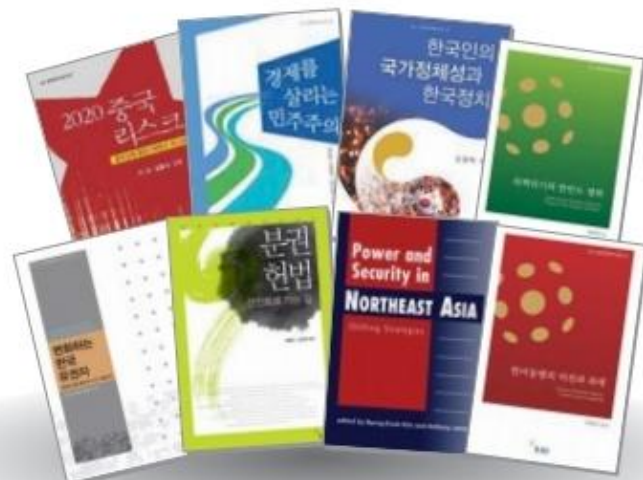
대통령의 성공조건 I : 역할 · 권한 · 책임
대통령의 성공조건 II : 회고와 제언
정치개혁의 성공조건 : 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 현장에서의 회고와 전망
국회의 성공조건 : 윤리와 정책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분권헌법 : 선진화로 가는 길

* EAI 여론분석시리즈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 국민여론 · 소수정부 · 정책선택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 패널조사를 통해 본 5·31 지방선거

* EAI 영문서적

Between Compliance and Conflict: East Asia, Latin America, and the "New" Pax Americana
Power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Shifting Strategies



EAI에서 새로 나온 책

EAI 사람들

연구기획

김병국 원장

하영선 지구넷21 회장

센터소장

김선혁 민주주의연구센터

김태현 외교안보센터

모종린 정책개발연구센터

이근 경제추격연구센터

이내영 여론분석센터

장훈 거버넌스센터

Stephan Haggard JEAS 편집주간

패널 위원장 · 팀장

강원택 시민정치패널

류길재 북한연구패널

이숙종 국제여론조사팀

임천순 국가인적자원패널

하영선 국가안보패널

연구원

김하정 선임연구원

백혜영 대외협력팀장

서상민 연구기획국장

송문희 연구원

양순화 행정실장

이상협 연구원

정한울 선임연구원



정한울 서상민 이상협
백혜영 송문희 김하정 양순화

국제자문위원

Shigeyuki Abe

Yun-han Chu

Larry Diamond

Jorge I. Domínguez

Stephan Haggard

Robert Hathaway

Mike Hobday

Christopher Hood

Justin Y. Lin

Kyoto University

Academia Sinica

Stanford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Sussex University

Oxford University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hung H. Lee

Xiabo Lu

Andrew MacIntyre

Akira Nakamura

Katy Kongdan Oh

Robert D. Putnam

Siew Tien Jon Quah

Gilbert Rozman

Ezra Vogel

Chia Siow Yue

University of Hawaii

Columbia University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Meiji University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Harvard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Princeton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

Institute of South East Asian Studies

이사회

이홍구 이사장 · 전 국무총리
강은모 유성 C.C.
강찬수 KANG & COMPANY
공유식 아주대학교
김경원 법무법인 김앤장
김병표 주원
김세원 서울대학교
김윤호 우림FMG
김 준 경방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김형국 숙명여자대학교
김철호 파워건설
노익상 한국리서치

남태희 STORM VENTURES
민선식 YBM Si-Sa
박찬근 비엠케이리미티드
박경수 피에스케이
박상용 Goldman Sachs
박진원 법무법인 세종
서진영 고려대학교
신동원 농심
여동찬 JIM & HALL'S KOREA
유창수 서울증권
이상호 EAST VALLEY C.C.
임현진 서울대학교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조상호 나남출판사
최재원 SK E&S
최진원 펜 엘라이브
최철원 MIGHT & MAIN
현정은 현대그룹
하영선 서울대학교
한승주 고려대학교
홍석현 중앙일보
Tami Overby 주한미상공회의소
감사
장진호 연세대학교





후원회

세종회원 강찬수 김병국 김병표 김 담 김운호 김형찬 노익상 민선식 박경수 박상용 박준형 신동원 서영민 여동찬
유창수 이 근 이상호 최철원 현정은

충무회원 고승수 고형식 김은영 김 준 남태희 박찬근 선승훈 신동준 이근우 임성빈

율곡회원 공성원 김동건 김상기 김용수 김 원 김인섭 김지영 김형국 노영훈 노호식 노환길 서창식 신영준 양주명
원종숙 유성수 이규호 이성량 이민교 이재섭 이종진(李種珍) 이지원 임현진 장의영 정량호 정영진 정 준
조규완 주진균 최윤준 황 수 황효진

퇴계회원 구상환 권용순 김석우 김세종 김용호 김영섭 김준희 김진기 김창욱 박근아 박진원 방효은 백승태 송원진
송홍선 우병익 이내영 이종진(李種震) 이창현 이태석 이흥구 임상균 주원사우회 조성재 지만수 추기능

삼봉회원 강윤관 광노전 김전호 김만호 김석진 김성수 김시연 김인혜 김철영 문진성 민병문 민선영 박규호 박용준
서봉교 손재기 신권식 신준희 안준모 옥우석 유문종 윤용집 은종학 이동찬 이병인 이영복 이흥규 장진호
정무섭 주영아 진지은 차국린 최 건 최복대 하영호 한숙현 황성진

다산회원 강영준 강문선 강홍렬 광준엽 구운정 고은희 고혜선 구준서 금영수 김관호 김경순 김경지 김전훈 김국형
김기정 김기춘 김남이 김동은 김부용 김미영 김석준 김설화 김수진 김신숙 김월명 김연옥 김영구 김영미
김영원 김용규 김용남 김용준 김용직 김우상 김 옥 김 원 김유상 김유주 김은숙 김재두 김정수 김정온
김정은 김정하 김종진 김지정 김지현 김진영 김진혁 김하정 김현전 김형재 김형준 김효신 김희동 김희정
김희진 남윤호 노재경 라종일 류재희 류길재 마금희 마정재 명정모 문지옥 문성환 문윤성 민지숙 박대균
박상준 박성만 박수진 박순희 박이나 박재준 박정호 박찬선 박휘락 배위섭 백혜영 서미혜 서상민 서용주
서은숙 서의석 성정은 소치형 송대창 송우엽 송지연 신성호 신윤경 심윤보 안건영 안용찬 안중익 양순화
양호실 엄찬섭 왕 서 오명학 오미순 원종애 유옥상 유은경 윤상민 윤정립 윤혜성 이달원 이동욱 이동훈
이마리 이민자 이상협 이선주 이미혜 이어희 이영호 이용자 이원종 이윤미 이정민 이정은 이정은 이정호
이종수 이재원 이지원 이지희 이충형 이 항 이현옥 이혜민 이흥미 이효재 이희정 이해완 임명수 임재환
임현모 임홍재 장원호 전경수 전명선 전해경 정기용 정아영 정연태 정영국 정원칠 정재호 정진영 조동현
조은희 조홍식 주미야 주 한 지혜리 진선희 차순만 채혜경 최관주 최신림 최종호 한계숙 한선호 한승혜
한일봉 한정원 한준희 한지현 한하람 황석희 황의숙 황정원 한금현 한홍일

재정

2002년 5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 EAI의 총수입은 48.9억원이었고 총지출은 28.7억원이었다. EAI는 상당한 수준의 수입 다변화를 이루어나가고 있다. 이사회는 출범 이후 5년 동안 장기발전기금으로 15.1억원을 기부하였고 경상비 지원금으로 6.6억원을 모았다. 한편 이사회가 조성한 장기발전기금에서 얻은 이자수입은 2억원에 달하였다.

2003년 3월에 조직된 후원회도 수입 다변화의 초석을 다졌다. 매달 후원금을 내는 EAI 후원회는 7명에서 280명으로 확대되었다. 이들이 기부한 후원금의 총누적액은 현재 3.3억원에 달한다. 결국 EAI 가족을 구성하는 이사회와 후원회가 5년 동안 모금한 후원금은 27.2억원으로서 전체 수입의 55%를 차지하는 셈이다. 그 이외의 수입원으로는 8.6억원(18%)을 후원한 국내·외 학술문화재단과 6.1억원(12%)과

4.6억원(10%)을 제공한 재계와 언론사가 있다. 정부기관으로부터도 1.7억(4%)을 연구비로 지원받았다.

총지출은 EAI가 갖고 있는 장점을 보여준다. EAI는 스태프 중심의 연구기관으로 아젠다가 변화할 때마다 새로운 인재로 태크포스를 구성함으로써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연구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같은 학술적 유연성 덕분에 EAI는 지극히 한정된 재원으로라도 민주대전략·안보대전략·인재대전략이라는 3대 사업을 다같이 키울 수 있었다.

EAI는 연구과제의 수를 고려할 때 경상비가 낮다. 출범 이후 5년 동안 민주대전략 부문에서만 116명의 교수가 30개의 태스크포스에 참여하였다. 안보대전략의 경우에는 78명의 학자가 24개의 태스크포스에 관여하였고 인재대전략 분야에서는 27명의 연구자가 10개의 사업을 이끌었다. 이

모든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에서부터 출판에 이르기까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받쳐준 스태프는 6명이었다. 출범 이후 5년 동안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은 3.9억원으로서 총지출의 14%였고 임차관리비·통신비·인쇄비 등을 보탠 행정지원비는 5.4억원(19%)이 된다.

EAI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 눈부신 재정적 성장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EAI가 국민의 연구기관으로 성장하려면 앞으로도 개인후원과 기관후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EAI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후원자를 항상 가슴속 깊이 담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후원자 한사람 한사람이 EAI에 대한 후원을 미래한국에 대한 투자로 생각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한국의 선도적 싱크탱크로 우뚝 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2년 6월 ~ 2007년 10월

EAI의 새로운 도약,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ast Asia Institute ANNUAL REPORT 2007

www.eai.or.kr